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OECD Health Statistics 2018

http://www.oecd.org/health

OECD Health Statistics 2018 | 2018. 8

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보건복지부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CONTENTS

Ⅰ 건강상태 13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 의한 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7. 자살에 의한 사망률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Ⅱ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47

9. 주류 소비량
10. 흡연인구 비율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Ⅲ 보건의료자원 61

12. 총 병원병상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
14. 임상의사
15. 임상간호사
16. CT 스캐너
17. MRI 장비
18. 의학계열 졸업자

Ⅳ 보건의료이용 83

19. 의사의 외래진료
20. 치과의사의 외래진료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2. 제왕절개 건수
23.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Ⅴ 보건의료비용 99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중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Ⅵ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115

29. 의약품 소비량
30. 의약품 판매액

Ⅶ 장기요양 123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OECD Health Statistics 2018 요약표 : 2016년 기준*

* 본 자료는 각 국의 통계작성 사정에 따라
2016년 기준으로 이용 가능한 가장 최근 자료로 구성됨

자료: OECD Health Statistics 2018 (2018. 6. 28. 추출)

분야	지표명	한국	OECD 평균	최대		최소	
건강 상태	1. 기대수명(년)	82.4	80.8	84.1	일본	74.7	라트비아
	2. 영아사망률(출생아 1,000명당, 명)	2.8	3.9	12.1	멕시코	0.7	아이슬란드
	3. 암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168.4 [15]	201.9	278.8	헝가리	114.7 [15]	멕시코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61.7 [15]	61.7	203.1 [15]	라트비아	34.2 [14]	프랑스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37.1 [15]	108.5	320.9 [15]	라트비아	32.3 [15]	일본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76.2 [15]	66.1	110.9 [15]	터키	27.2 [15]	핀란드
	7. 자살에 의한 사망률(인구 10만 명당, 명)	25.8 [15]	11.6	25.8 [15]	한국	2.1 [15]	터키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32.5	68.3	88.4	캐나다	32.5	한국
보건의 비의료 결정 요인	9. 주류 소비량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순수알코올 리터)	8.7	8.8	11.7	체코, 프랑스	1.3	터키
	10. 흡연인구 비율(15세 이상 인구, %)	18.4	18.5	27.3 [14]	그리스	7.6 [15]	멕시코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34.5	58.1	74.2	칠레	25.4	일본
보건 의료 자원	12. 총 병원병상(인구 1,000명당)	12.0	4.7	13.1	일본	1.5	멕시코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인구 1,000명당)	7.1	3.6	7.8	일본	1.5	멕시코
	14. 임상의사(인구 1,000명당)	2.3	3.3	5.1	오스트리아	2.3	한국
	15. 임상간호사(인구 1,000명당)	6.8	9.5	17.5	노르웨이	2.9	멕시코
	16. CT 스캐너(인구 100만 명당)	37.8	26.8	107.2 [14]	일본	6.1	멕시코
	17. MRI 장비(인구 100만 명당)	27.8	16.8	51.7 [14]	일본	2.6	멕시코
	18. 의학계열 졸업자(인구 10만 명당)	7.9	12.1	24.4	아일랜드	0.0	룩셈부르크
보건 의료 이용	19. 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17.0	7.4	17.0	한국	2.8	스웨덴
	20. 치과의사의 외래진료(국민 1인당)	1.4	1.2	3.2 [15]	일본	0.2	멕시코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일)	18.1	8.3	28.5	일본	3.8	멕시코
	22. 제왕절개 건수(출생아 1,000명당)	394.0 [15]	264.0	531.5	터키	151.9	이스라엘
	23.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인구 10만 명당)	7.7	37.6	64.8	덴마크	4.2	멕시코
보건 의료 비용 ('17잠정치)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7.6	8.9	17.2	미국	4.2	터키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 재원 비중(%)	58.2	73.5	85.0	노르웨이, 독일	51.6	멕시코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16)	33.3	20.3	45.0	라트비아	9.8	프랑스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중(%)('16)	21.3	16.1	28.8	헝가리	6.6	덴마크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US$ PPP)	2,897	4,069	10,209	미국	1,034	멕시코
의약품 시장	30. 의약품 판매액(1인당 US$ PPP)	589.1	448.9	685.5	벨기에	155.6	뉴질랜드
장기 요양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65세 이상 인구 1,000명 당)	61.2	49.1	83.7	룩셈부르크	12.1	폴란드

주요내용(요약)

본 책자는 OECD가 2018년 6월말 공표한 보건지표(Health Statistics 2018) 중 주요지표를 추출하여, 업무상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으로 주로 2016년 기준의 수치를 수록하고 있음

※ 관련 자료는 OECD 홈페이지(http://www.oecd.org/health)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8년)보다 1.6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8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 수준(0.9년)보다 두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1년을 기록하였으며, 스위스(83.7년)가 뒤를 이음
- 이와 반대로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라트비아(74.7년)와 멕시코(75.2년) 순임

■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5.8명(2015년)으로 OECD 평균(11.6명)에 비해 14.2명 높음

-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1명, 2015년)와 그리스(4.4명, 2015년)이며, 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18.1명, 2015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함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비율은 18.4%로 OECD 평균(18.5%)과 비슷함

- 여성 흡연율(4.1%)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3.6%) 다음으로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32.9%)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그리스(27.3%, 2014년)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였으며, 멕시코(7.6%, 2015년)의 흡연율이 가장 낮음
- 2011년과 2016년 사이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흡연율이 변동이 없거나 줄어듦

■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0병상으로 OECD 평균(4.7병상)보다 2.6배 많음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 총 병원병상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3배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총 병원병상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1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 병원병상수가 많음

주요내용(요약)

■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1.0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임상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1명을 기록함
- 우리나라는 멕시코, 폴란드, 일본(2.4명)과 함께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미만으로 낮음

■ 임상간호사수(간호조무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6.8명으로 OECD 평균 (9.5명)보다 2.7명 적음

-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17.5명), 스위스(17.0명), 덴마크(16.9명, 2015년)는 인구 1,000명당 15명 이상의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함
- 멕시코(2.9명), 그리스(3.3명), 라트비아(4.6명)는 5명 미만의 적은 간호 인력을 기록함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평균(7.4회)보다 2.3배 많음

- 2011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2.5회로 5년간 4.5회 늘어났고, OECD 평균은 2011년 7.0회에서 2016년 7.4회로 증가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12.8회(2015년)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진찰 횟수를 기록함

■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환자 1인당 입원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8.1일로 OECD 회원국 평균(8.3일)보다 2.2배 길

- 한국 외에 평균병원재원일수가 10일 이상인 국가는 일본이 28.5일로 가장 길고 프랑스가 10.1일(2015년)임
- 멕시코(3.8일)와 터키(4.0일)는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5일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은 재원일수를 기록함

■ 2017년(잠정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7.6%로 OECD 회원국 평균(8.9%)보다 낮음

- 2011년에 비해 2017년(잠정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3%p 상승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상승(0.2%p)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함
-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임

주요내용(요약)

-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17.2%로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기록함

■ 2017년(잠정치)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은 58.2%로 OECD 회원국 평균(73.5%)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OECD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추이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치)
한국	60.2	60.4	59.6	58.9	59.0	58.8	58.9	59.2	58.2
OECD 평균	73.4	73.2	73.1	72.7	72.6	73.4	73.4	73.6	73.5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독일(85.0%), 덴마크·일본(84.2%), 스웨덴(83.6%), 프랑스(83.0%), 아이슬란드(82.0%), 미국·체코(81.8%), 룩셈부르크(81.6%), 네덜란드(81.3%), 슬로바키아(80.5%)로 80% 이상을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음
- 멕시코(51.6%), 라트비아(54.2%), 한국(58.2%)은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비중이 60% 미만으로 낮은 국가임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61.2개로 OECD 평균(49.1개)보다 다소 높음

-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2011년 47.2에서 5년 사이 14.0병상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7병상 줄어듦
-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83.7개를 기록함

제I장

건강상태

1. 기대수명
2. 영아사망률
3. 암에 의한 사망률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7. 자살에 의한 사망률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I 건강상태

1. 기대수명*

* 제시된 전체는 남·여 기대수명의 평균치임

■ 기대수명은 82.4년으로 OECD 평균 기대수명(80.8년)보다 1.6년 긴 것으로 나타남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8년이 증가하여, OECD 평균 증가 수준(0.9년)보다 두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긴 나라는 일본으로 84.1년을 기록하였으며, 스위스(83.7년)가 뒤를 이음

- 이와 반대로 OECD 회원국 중 기대수명이 가장 짧은 국가는 라트비아(74.7년)와 멕시코(75.2년) 순임

■ 최근 수십 년 동안 OECD 회원국에서 기대수명은 상당히 증가함

- 기대수명 증가의 배경 요인으로는 사망률에 영향을 주는 생활수준과 생활양식 및 교육수준의 향상,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확대와 의약품의 효율성 개선 등이 있음

〈표 1〉 기대수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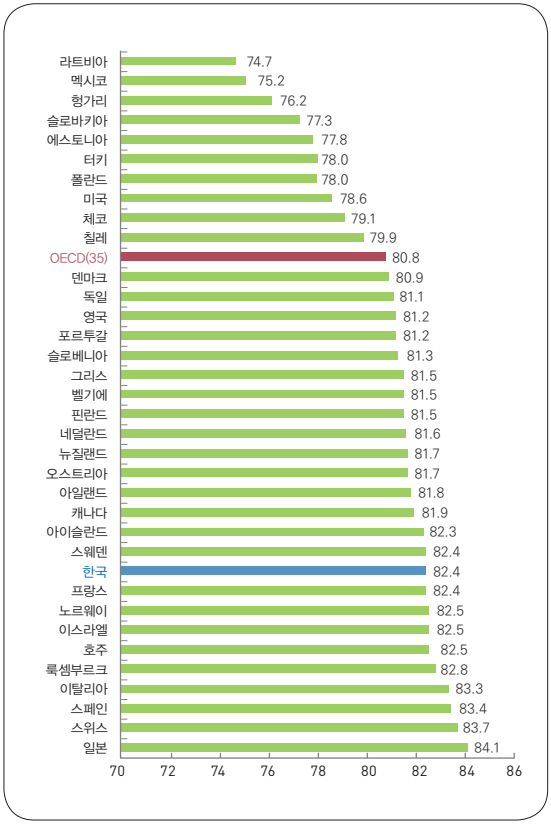
(단위: 년)

	2011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2.0	79.7	84.2	82.5	80.4	84.6	
오스트리아	81.1	78.3	83.8	81.7	79.3	84.1	
벨기에	80.7	78.0	83.3	81.5	79.0	84.0	
캐나다	81.3	79.1	83.5	81.9	79.8	83.9	(2015)
칠레	78.7	76.0	81.4	79.9	77.1	82.7	(2015)
체코	78.0	74.8	81.1	79.1	76.1	82.1	
덴마크	79.9	77.8	81.9	80.9	79.0	82.8	
에스토니아	76.4	71.4	81.3	77.8	73.3	82.2	
핀란드	80.6	77.3	83.8	81.5	78.6	84.4	
프랑스	82.3	78.8	85.7	82.4	79.2	85.5	(2015)
독일	80.5	77.9	83.1	81.1	78.6	83.5	
그리스	80.8	78.0	83.6	81.5	78.9	84.0	
헝가리	75.0	71.2	78.7	76.2	72.6	79.7	
아이슬란드	82.4	80.7	84.1	82.3	80.4	84.1	
아일랜드	80.8	78.6	83.0	81.8	79.9	83.6	
이스라엘	81.7	79.9	83.5	82.5	80.7	84.2	
이탈리아	82.3	79.7	84.8	83.3	81.0	85.6	
일본	82.7	79.4	85.9	84.1	81.0	87.1	
한국	80.6	77.3	84.0	82.4	79.3	85.4	
라트비아	73.7	68.6	78.8	74.7	69.8	79.6	
룩셈부르크	81.1	78.5	83.6	82.8	80.1	85.4	
멕시코	74.2	71.2	77.2	75.2	72.6	77.8	
네덜란드	81.3	79.4	83.1	81.6	80.0	83.2	
뉴질랜드	81.0	79.1	82.9	81.7	80.0	83.4	
노르웨이	81.4	79.1	83.6	82.5	80.7	84.2	
폴란드	76.8	72.5	81.1	78.0	73.9	82.0	
포르투갈	80.6	77.3	83.8	81.2	78.1	84.3	
슬로바키아	76.1	72.3	79.8	77.3	73.8	80.7	
슬로베니아	80.1	76.8	83.3	81.3	78.2	84.3	
스페인	82.6	79.5	85.6	83.4	80.5	86.3	
스웨덴	81.9	79.9	83.8	82.4	80.6	84.1	
스위스	82.8	80.5	85.0	83.7	81.7	85.6	
터키	74.6	72.0	77.1	78.0	75.3	80.7	
영국	81.0	79.0	83.0	81.2	79.4	83.0	
미국	78.7	76.3	81.1	78.6	76.1	81.1	
평균[1](35)	79.9	77.0	82.7	80.8	78.1	83.4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1] 기대수명(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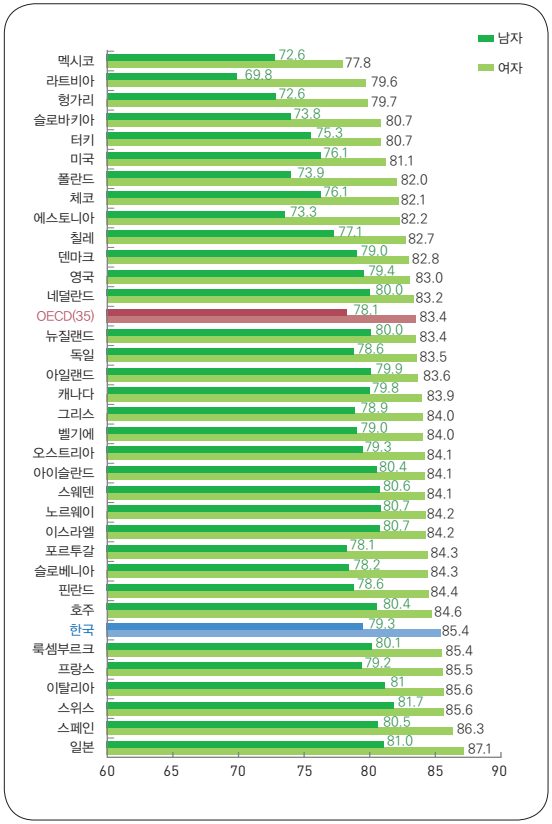
(단위: 년)



주) 1. OECD: 2016년 (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칠레·프랑스(2015)

[그림 1-2] 성별 기대수명(남자, 여자), 2016년

(단위: 년)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칠레·프랑스(2015)

2. 영아사망률*

*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출생 후 1년 이내 사망한 영아의 수로, 국가의 보건복지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 중 하나임

■ 영아사망률은 출생아 1,000명당 2.8명으로 OECD평균(3.9명)보다 1.1명 낮음

- 지난 5년간 0.2명(2011년: 3.0명 → 2016년: 2.8명) 줄어들었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도 4.2명에서 3.9명으로 0.3명 줄어듦

■ OECD 회원국 중 아이슬란드(0.7명), 핀란드(1.9명)는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이 2.0명 미만으로 가장 낮음

- OECD 회원국 중 11개 국가에서 출생아 1,000명당 영아사망률이 3.0명 미만으로 나타남
- 멕시코는 영아사망률이 12.1명을 기록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남

〈표 2〉 영아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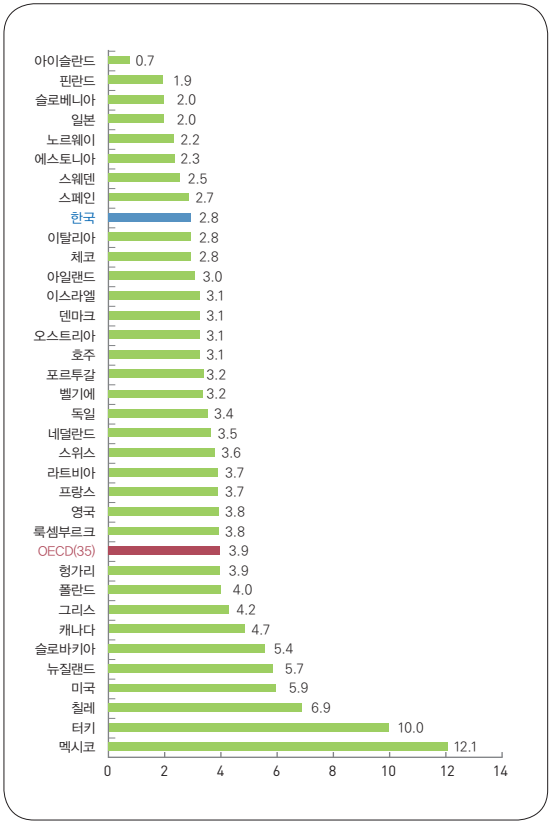
(단위: 명/출생아1,000명)

	2011	2016	
호주	3.8	3.1	
오스트리아	3.6	3.1	
벨기에	3.4	3.2	
캐나다	4.9	4.7	(2014)
칠레	7.7	6.9	(2015)
체코	2.7	2.8	
덴마크	3.5	3.1	
에스토니아	2.5	2.3	
핀란드	2.4	1.9	
프랑스	3.5	3.7	
독일	3.6	3.4	
그리스	3.4	4.2	
헝가리	4.9	3.9	
아이슬란드	0.9	0.7	
아일랜드	3.5	3.0	
이스라엘	3.5	3.1	
이탈리아	2.9	2.8	
일본	2.3	2.0	
한국	3.0	2.8	
라트비아	6.6	3.7	
룩셈부르크	4.3	3.8	
멕시코	13.7	12.1	
네덜란드	3.6	3.5	
뉴질랜드	5.2	5.7	(2014)
노르웨이	2.4	2.2	
폴란드	4.7	4.0	
포르투갈	3.1	3.2	
슬로바키아	4.9	5.4	
슬로베니아	2.9	2.0	
스페인	3.1	2.7	
스웨덴	2.1	2.5	
스위스	3.8	3.6	
터키	11.6	10.0	
영국	4.2	3.8	
미국	6.1	5.9	(2015)
평균[1](35)	4.2	3.9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1] 영아사망률,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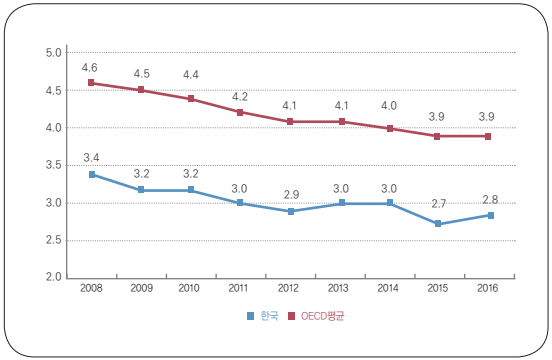
(단위: 명/출생아1,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4), 칠레·미국(2015)

[그림 2-2] 연도별 영아사망률, 2008~2016년

(단위: 명/출생아1,000명)



주) OECD: 35개국 기준, 각 해당년도 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3. 암에 의한 사망률

■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168.4명(2015년)으로 OECD 평균(201.9명)에 비해 낮은 편임

- 2011년 185.1명에서 2015년 168.4명으로 16.7명 줄어들고 2011과 2016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 암 사망률은 7.5명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감소폭보다 적음
- 남성의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59.0명(2015년)이고, 여성의 암 사망률은 111.1명(2015년)으로 OECD 회원국의 평균 암 사망률 264.3명(남성), 160.0명(여성)에 비해 낮음

* 연령표준화 사망률(Age-standardized death rate): 국가 간 또는 시계열에 의하여 생기는 연령구조의 차이에 따른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OECD 표준 인구구조로 표준화하여 산출한 사망률

$$\text{연령표준화 사망률} = \frac{\Sigma(\text{연령별 사망률} \times \text{표준인구의 연령별 인구})}{\text{표준인구}}$$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의 암 사망률은 여성의 암 사망률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 암 사망률의 남·녀 차이는 2.3배(2015년)로 터키(2015년)와 함께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에스토니아(2015년) 2.2배 순이며 멕시코(2015년)와 아이슬란드는 남·녀 차이가 1.2배로 가장 낮음

〈표 3〉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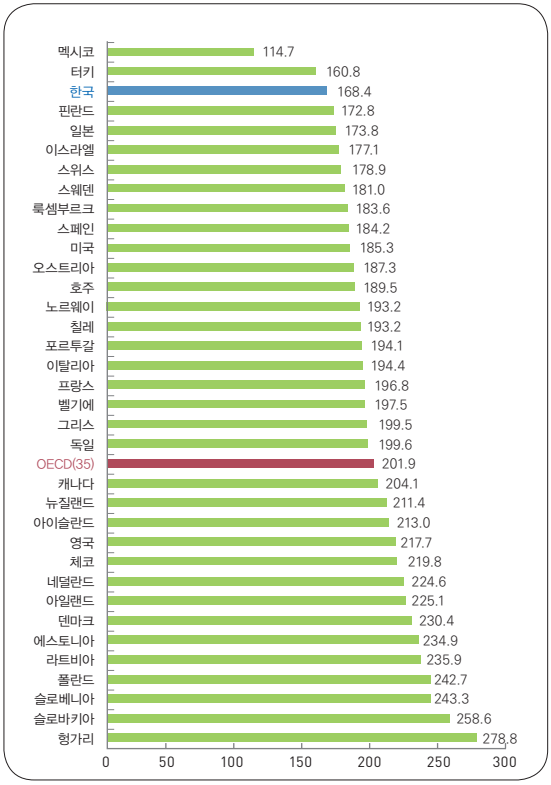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1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99.6	255.1	157.5		189.5	236.1	153.1	(2015)
오스트리아	202.9	263.1	163.4		187.3	235.2	153.5	
벨기에	213.6	282.9	166.2		197.5	256.5	155.3	(2015)
캐나다	207.5	248.7	177.9		204.1	243.6	175.5	(2013)
칠레	202.2	252.7	169.2		193.2	241.7	160.8	(2015)
체코	239.8	321.3	185.6		219.8	291.2	171.5	
덴마크	246.6	297.9	211.7		230.4	276.0	198.9	(2015)
에스토니아	235.5	364.7	172.2		234.9	365.4	168.5	(2015)
핀란드	178.4	230.3	146.0		172.8	220.3	141.4	(2015)
프랑스	203.5	284.2	145.4		196.8	269.5	143.9	(2014)
독일	205.0	261.1	165.6		199.6	253.3	161.3	(2015)
그리스	193.4	259.7	139.3		199.5	274.2	139.8	(2015)
헝가리	291.1	404.8	218.5		278.8	383.9	212.0	
아이슬란드	208.5	251.5	175.9		213.0	239.4	194.7	
아일랜드	237.2	289.8	200.9		225.1	267.8	195.2	(2014)
이스라엘	180.9	211.9	158.3		177.1	209.5	153.1	(2015)
이탈리아	207.3	280.3	156.9		194.4	256.2	150.8	(2015)
일본	183.9	263.2	129.0		173.8	244.9	123.8	(2015)
한국	185.1	290.0	119.9		168.4	259.0	111.1	(2015)
라트비아	241.5	375.3	175.3		235.9	354.1	178.1	(2015)
룩셈부르크	207.9	276.3	164.1		183.6	218.9	156.8	(2015)
멕시코	118.0	133.9	107.9		114.7	129.0	105.3	(2015)
네덜란드	237.6	298.8	197.7		224.6	277.8	188.1	
뉴질랜드	215.7	254.6	187.2		211.4	252.3	181.3	(2013)
노르웨이	208.1	262.1	171.9		193.2	240.1	161.1	(2015)
폴란드	238.9	336.0	178.7		242.7	337.8	183.7	(2015)
포르투갈	198.7	282.8	139.1		194.1	279.1	133.9	(2014)
슬로바키아	247.2	360.3	175.6	(2010)	258.6	367.0	191.5	(2014)
슬로베니아	249.8	353.7	186.9		243.3	336.9	183.9	(2015)
스페인	197.7	285.6	132.5		184.2	262.2	125.6	(2015)
스웨덴	187.5	225.1	162.6		181.0	213.2	158.7	
스위스	181.2	240.7	141.2		178.9	232.4	142.1	(2015)
터키	156.0	230.0	99.2		160.8	236.4	102.6	(2015)
영국	225.2	273.3	191.1		217.7	263.0	184.8	(2015)
미국	194.5	237.7	164.1		185.3	224.9	157.1	(2015)
평균[1](35)	209.4	278.3	163.8		201.9	264.3	160.0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3-1]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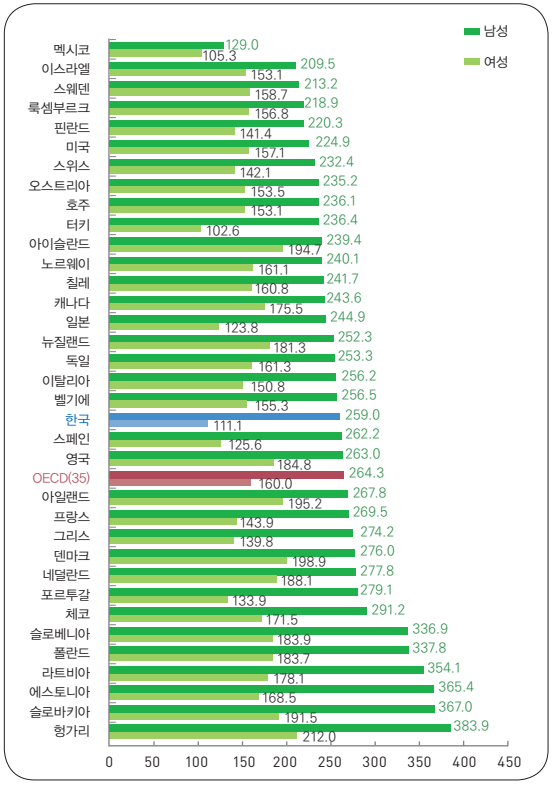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3), 프랑스·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2014), 호주·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2015)

[그림 3-2] 암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6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3), 프랑스·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2014), 호주·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2015)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률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61.7명(2015년)으로 OECD 평균(61.7명)과 같음

- 2011년 뇌혈관질환 사망률은 79.7명으로 지난 4년간 22.6% 정도 감소했으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OECD 회원국의 평균 뇌혈관질환 사망률도 14.2% 감소함

■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OECD 회원국 간에 큰 차이를 나타냄

- 프랑스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4.2명(2014년)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가장 높은 라트비아(203.1명, 2015년)의 16.8% 수준에 불과함
- 라트비아(203.1명, 2015년), 슬로바키아(110.8명, 2014년), 터키(100.1명, 2015년)등의 국가는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100명 이상으로 높은 반면, 프랑스(34.2명, 2014년), 스위스(34.6명, 2015년), 캐나다(36.0명, 2013년), 이스라엘(39.7명, 2015년)은 뇌혈관질환 사망률이 40명 미만으로 낮음

〈표 4〉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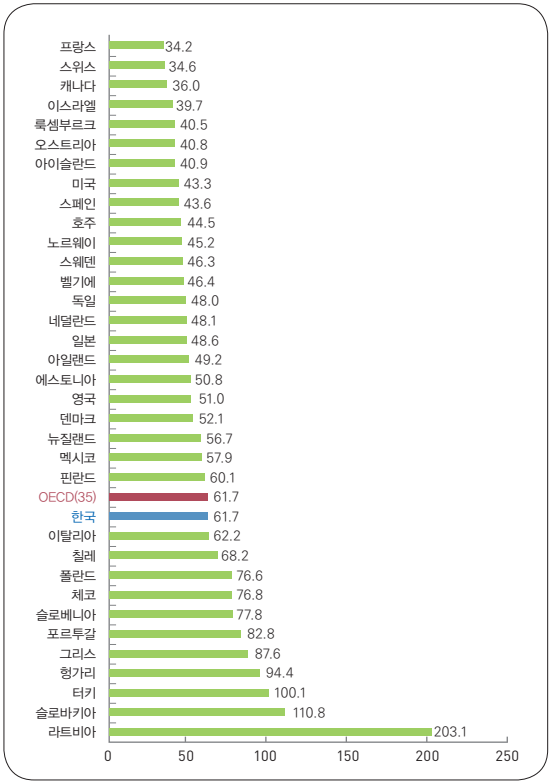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1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52.2	51.0	51.9		44.5	43.3	44.6	(2015)
오스트리아	48.1	52.8	44.5		40.8	43.6	38.1	
벨기에	51.7	55.5	48.3		46.4	48.5	43.9	(2015)
캐나다	37.8	39.1	36.3		36.0	36.9	34.7	(2013)
칠레	80.7	95.7	69.8		68.2	79.6	59.7	(2015)
체코	106.4	114.8	99.1		76.8	84.7	69.8	
덴마크	56.2	60.5	52.5		52.1	56.3	48.0	(2015)
에스토니아	82.4	104.6	69.7		50.8	64.1	42.6	(2015)
핀란드	67.1	75.9	59.6		60.1	66.4	54.4	(2015)
프랑스	38.1	44.1	33.6		34.2	38.0	31.0	(2014)
독일	53.4	55.5	50.3		48.0	51.4	44.5	(2015)
그리스	107.2	100.3	112.5		87.6	88.9	85.0	(2015)
헝가리	123.9	149.9	106.8		94.4	115.1	80.4	
아이슬란드	54.6	49.8	57.8		40.9	46.1	36.6	
아일랜드	58.6	61.0	56.1		49.2	49.2	48.2	(2014)
이스라엘	43.5	46.9	40.3		39.7	43.1	36.7	(2015)
이탈리아	68.5	75.1	63.4		62.2	67.1	58.0	(2015)
일본	60.6	77.8	47.9		48.6	61.6	38.4	(2015)
한국	79.7	100.2	67.4		61.7	76.7	51.9	(2015)
라트비아	184.6	219.9	163.5		203.1	227.9	184.7	(2015)
룩셈부르크	59.6	67.6	54.9		40.5	47.2	35.3	(2015)
멕시코	61.3	65.9	57.5		57.9	62.8	54.0	(2015)
네덜란드	48.2	49.2	46.6		48.1	49.7	46.0	
뉴질랜드	66.7	61.6	69.0		56.7	54.9	56.7	(2013)
노르웨이	58.0	64.5	53.0		45.2	49.4	41.5	(2015)
폴란드	98.5	112.2	87.4		76.6	88.1	67.0	(2015)
포르투갈	99.9	112.0	90.6		82.8	95.5	73.5	(2014)
슬로바키아	136.7	157.4	122.0	(2010)	110.8	133.7	94.9	(2014)
슬로베니아	83.9	97.5	74.6		77.8	86.9	70.9	(2015)
스페인	50.2	55.1	45.8		43.6	48.5	39.4	(2015)
스웨덴	59.9	65.0	55.5		46.3	50.6	42.4	
스위스	38.2	40.7	36.4		34.6	37.7	32.3	(2015)
터키	100.1	106.7	95.2		100.1	107.0	94.6	(2015)
영국	56.1	56.5	54.8		51.0	52.0	49.7	(2015)
미국	42.6	43.4	41.4		43.3	44.6	41.6	(2015)
평균[1](35)	71.9	79.6	66.2		61.7	68.5	56.3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4-1]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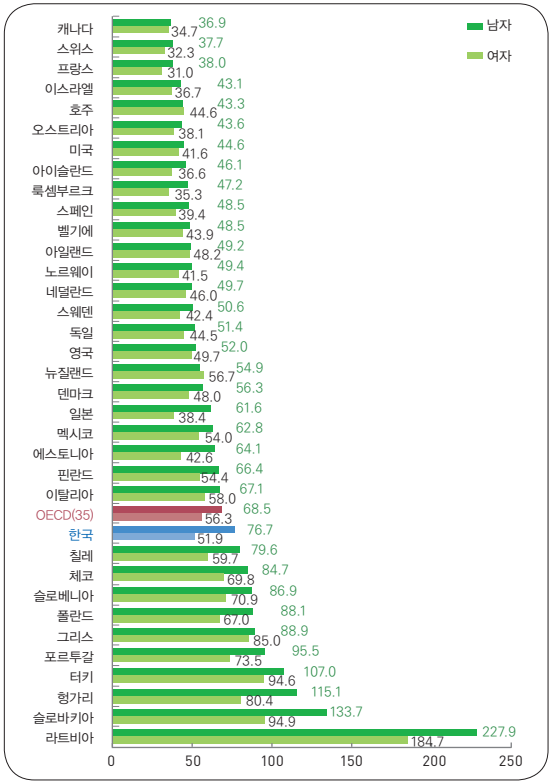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3), 프랑스·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2014), 호주·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2015)

[그림 4-2] 뇌혈관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6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3), 프랑스·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2014), 호주·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2015)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

■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37.1명(2015년)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사망률을 기록한 일본(32.3명, 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을 기록함

- 2011년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42.3명으로 4년간 5.2명 줄어듦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여성에 비해 남성이 높게 나타남

- OECD 회원국의 허혈성심장질환 사망률은 남성 평균 147.1명, 여성 평균 80.3명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1.8배 높은 사망률을 기록함
- OECD 회원국 중 라트비아(320.9명, 2015년), 슬로바키아(290.8명, 2014년), 헝가리(277.3명)는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매우 높음

〈표 5〉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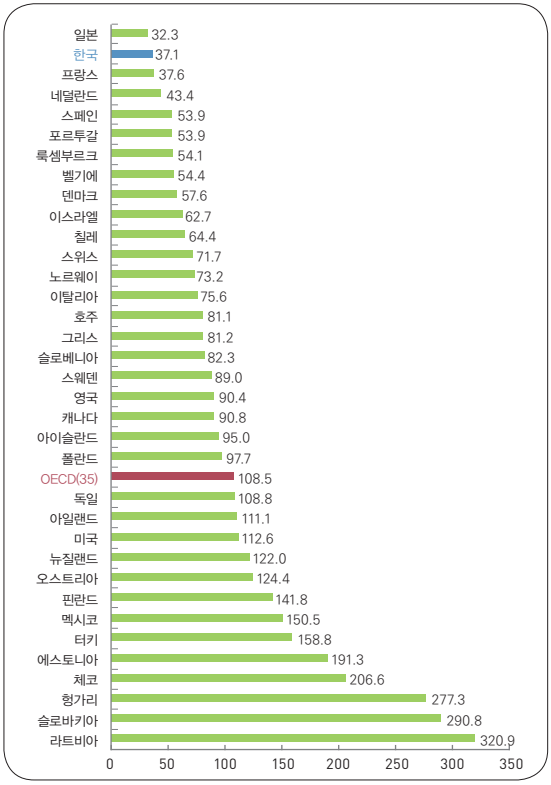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1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99.8	130.9	74.3		81.1	106.8	59.5	(2015)
오스트리아	142.0	190.1	108.2		124.4	164.2	95.4	
벨기에	64.9	93.2	44.4		54.4	78.8	36.3	(2015)
캐나다	95.2	128.0	68.8		90.8	123.0	64.4	(2013)
칠레	63.6	90.0	43.0		64.4	90.0	44.3	(2015)
체코	260.4	328.3	212.3		206.6	267.2	163.5	
덴마크	73.2	99.6	53.0		57.6	79.5	40.8	(2015)
에스토니아	263.9	365.9	205.0		191.3	268.9	146.5	(2015)
핀란드	171.9	246.8	120.0		141.8	202.0	98.5	(2015)
프랑스	42.5	65.3	26.4		37.6	57.7	23.3	(2014)
독일	115.2	153.3	86.3		108.8	149.8	78.5	(2015)
그리스	83.1	114.4	55.6		81.2	115.7	51.5	(2015)
헝가리	309.2	391.3	253.2		277.3	357.5	224.2	
아이슬란드	128.4	174.0	91.8		95.0	144.0	57.2	
아일랜드	135.8	181.1	99.4		111.1	151.0	78.2	(2014)
이스라엘	77.3	102.3	58.2		62.7	85.6	45.4	(2015)
이탈리아	86.2	116.6	64.3		75.6	102.8	55.7	(2015)
일본	39.0	56.1	26.0		32.3	47.2	20.6	(2015)
한국	42.3	54.0	34.0		37.1	48.2	28.8	(2015)
라트비아	355.5	522.7	267.0		320.9	446.7	249.3	(2015)
룩셈부르크	69.1	97.4	50.9		54.1	77.1	34.7	(2015)
멕시코	140.6	174.2	113.4		150.5	186.4	121.4	(2015)
네덜란드	55.8	80.2	38.3		43.4	61.3	29.9	
뉴질랜드	137.9	173.0	108.3		122.0	159.7	91.3	(2013)
노르웨이	90.4	122.6	65.2		73.2	98.8	52.6	(2015)
폴란드	127.7	178.3	93.3		97.7	137.3	69.6	(2015)
포르투갈	53.0	72.2	38.9		53.9	76.3	36.8	(2014)
슬로바키아	404.4	497.2	343.1		290.8	359.9	244.2	(2014)
슬로베니아	90.9	131.6	63.7	(2010)	82.3	117.0	56.0	(2015)
스페인	62.1	89.2	41.5		53.9	78.4	34.8	(2015)
스웨덴	115.8	155.8	84.7		89.0	120.9	63.1	
스위스	81.4	115.5	57.6		71.7	101.9	49.8	(2015)
터키	115.9	150.5	88.4		158.8	203.9	123.4	(2015)
영국	101.9	143.7	69.2		90.4	128.2	60.1	(2015)
미국	123.8	167.4	90.7		112.6	155.2	80.2	(2015)
평균[1](35)	126.3	170.1	95.4		108.5	147.1	80.3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5-1]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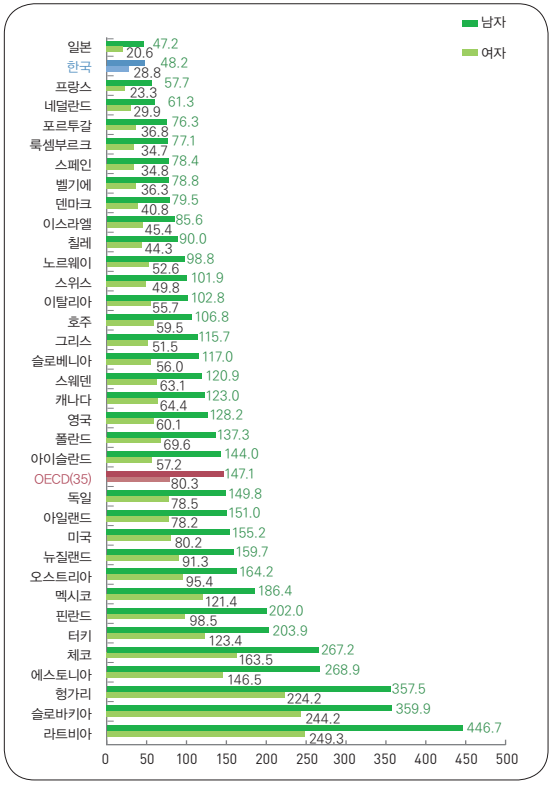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3), 프랑스·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2014), 호주·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2015)

[그림 5-2] 허혈성심장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6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3), 프랑스·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2014), 호주·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2015)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

■ 호흡기질환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76.2명(2015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66.1명)에 비해 높은 수준임

- 2011년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68.9명으로 4년 사이 7.3명 늘어남
- 남성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122.9명(2015년), 여성의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52.5명(2015년)으로, 남성의 사망률이 여성에 비하여 2.3배 높음

■ 호흡기질환 사망률은 OECD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 사망률이 여성 사망률에 비해 높음

- OECD 회원국 중 핀란드(27.2명, 2015년), 라트비아(29.0명, 2015년)는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30명 이하로 가장 낮으며, 터키(110.9명, 2015년), 영국(108.7명, 2015년)은 호흡기질환 사망률이 100명 이상으로 가장 높음

〈표 6〉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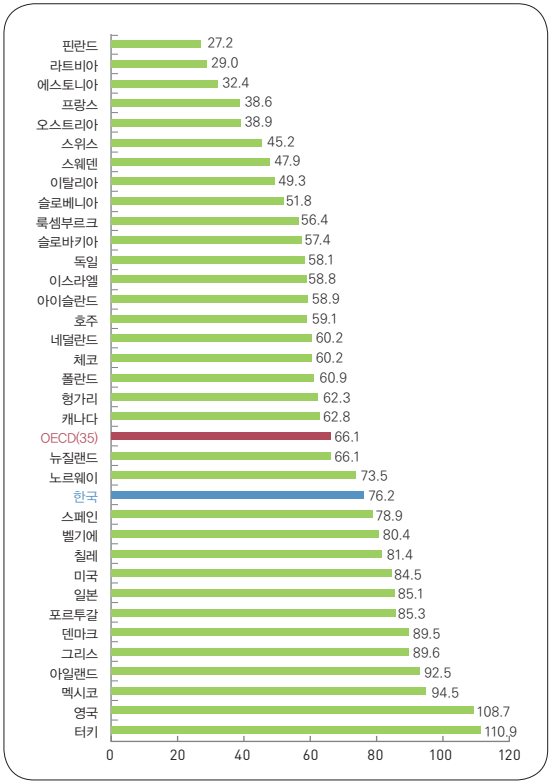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1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58.5	74.8	47.4		59.1	70.5	50.5	(2015)
오스트리아	40.0	58.1	28.9		38.9	53.2	29.6	
벨기에	78.3	114.4	56.3		80.4	109.3	62.0	(2015)
캐나다	63.4	78.5	53.3		62.8	77.8	52.6	(2013)
칠레	86.9	110.2	71.3		81.4	103.5	66.5	(2015)
체코	53.6	80.1	37.4		60.2	85.7	43.4	
덴마크	94.8	112.5	84.2		89.5	106.5	78.6	(2015)
에스토니아	27.9	56.6	14.9		32.4	62.6	17.6	(2015)
핀란드	31.3	52.3	19.3		27.2	41.7	18.0	(2015)
프랑스	40.9	59.3	29.3		38.6	54.6	28.4	(2014)
독일	54.3	75.8	40.6		58.1	79.7	43.9	(2015)
그리스	74.3	84.9	65.7		89.6	105.6	77.1	(2015)
헝가리	60.1	91.0	42.3		62.3	92.5	45.1	
아이슬란드	64.1	66.8	61.5		58.9	60.4	58.3	
아일랜드	101.5	122.5	87.5		92.5	114.1	78.2	(2014)
이스라엘	56.0	68.0	47.3		58.8	72.2	48.6	(2015)
이탈리아	46.2	70.9	31.9		49.3	70.5	36.4	(2015)
일본	93.5	149.5	61.3		85.1	135.3	55.0	(2015)
한국	68.9	113.0	47.3		76.2	122.9	52.5	(2015)
라트비아	30.8	60.0	15.2		29.0	58.2	14.3	(2015)
룩셈부르크	63.2	80.3	53.2		56.4	67.2	49.0	(2015)
멕시코	92.7	118.2	74.6		94.5	118.6	76.9	(2015)
네덜란드	76.0	103.2	60.7		60.2	76.7	50.3	
뉴질랜드	68.2	80.4	60.1		66.1	78.3	57.7	(2013)
노르웨이	73.8	94.1	61.1		73.5	91.6	62.0	(2015)
폴란드	55.0	90.0	35.4		60.9	93.1	42.5	(2015)
포르투갈	90.4	127.9	67.2		85.3	121.2	63.5	(2014)
슬로바키아	75.8	114.3	54.0	(2010)	57.4	90.4	38.8	(2014)
슬로베니아	54.0	84.9	39.6		51.8	75.1	39.7	(2015)
스페인	73.5	112.1	48.5		78.9	116.6	53.9	(2015)
스웨덴	46.5	57.6	39.6		47.9	55.5	43.0	
스위스	39.7	55.6	29.8		45.2	59.4	36.1	(2015)
터키	92.9	135.8	63.7		110.9	156.0	80.1	(2015)
영국	103.3	123.1	89.8		108.7	127.3	95.6	(2015)
미국	83.6	100.2	72.7		84.5	99.8	74.4	(2015)
평균[1](35)	66.1	90.8	51.2		66.1	88.7	52.0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6-1]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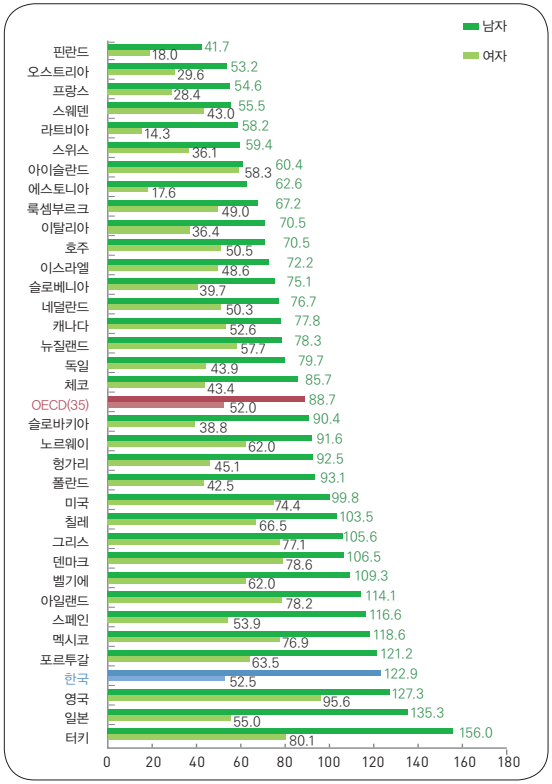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3), 프랑스·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2014), 호주·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2015)

[그림 6-2] 호흡기질환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6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3), 프랑스·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2014), 호주·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2015)

7. 자살에 의한 사망률

■ 자살에 의한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5.8명(2015년)으로 OECD 평균(11.6명)에 비해 14.2명 높음

-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최근에는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는 가장 높은 수준임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추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전체	29.0	33.8	33.5	33.3	29.1	28.7	26.7	25.8
남성	41.9	48.3	49.6	50.0	43.2	43.3	40.1	39.5
여성	19.4	22.8	21.4	20.2	17.8	16.8	15.4	14.7

■ OECD 회원국의 평균 자살률은 남성 18.5명, 여성 5.4명으로 모든 회원국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높게 나타남

- OECD 평균 자살률은 2011년 12.5명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냄
- OECD 회원국 중 자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터키(2.1명, 2015년)와 그리스(4.4명, 2015년)이며, 라트비아와 슬로베니아(18.1명, 2015년)는 우리나라 다음으로 높은 자살률을 기록함

〈표 7〉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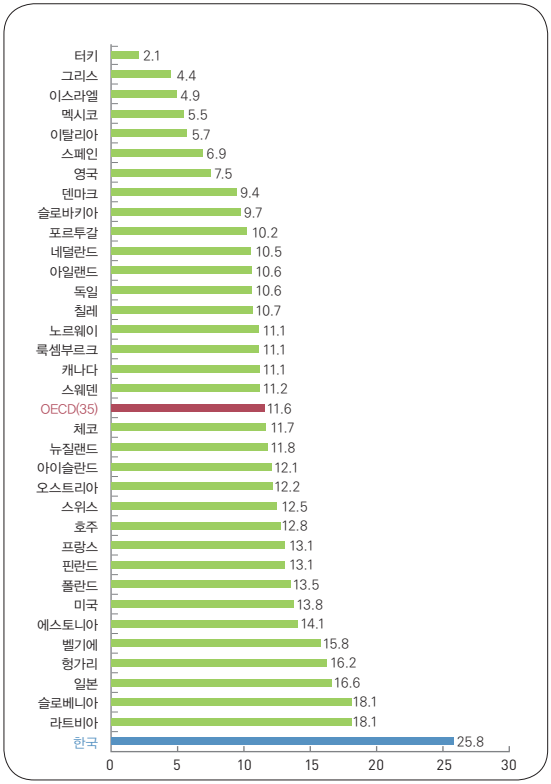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1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0.7	16.6	5.1	12.8	19.7	6.2	(2015)
오스트리아	14.1	23.3	6.5	12.2	19.9	5.8	
벨기에	18.1	27.0	10.2	15.8	23.0	9.0	(2015)
캐나다	10.5	15.9	5.3	11.1	16.9	5.6	(2013)
칠레	12.3	21.1	4.2	10.7	17.8	4.2	(2015)
체코	14.3	25.3	4.4	11.7	19.9	4.5	
덴마크	10.2	15.6	5.0	9.4	13.4	5.6	(2015)
에스토니아	15.3	28.5	5.0	14.1	26.2	4.5	(2015)
핀란드	16.4	26.3	7.1	13.1	20.5	6.0	(2015)
프랑스	15.8	25.4	7.5	13.1	21.1	6.2	(2014)
독일	10.8	17.4	5.0	10.6	16.5	5.4	(2015)
그리스	3.9	6.6	1.4	4.4	7.4	1.7	(2015)
헝가리	22.8	38.8	9.6	16.2	27.5	7.3	
아이슬란드	8.7	14.1	3.2	12.1	21.5	2.4	
아일랜드	12.2	20.5	4.1	10.6	17.4	3.8	(2014)
이스라엘	6.2	10.5	2.5	4.9	7.9	2.0	(2015)
이탈리아	6.2	10.5	2.4	5.7	9.4	2.4	(2015)
일본	20.9	29.9	12.4	16.6	24.2	9.3	(2015)
한국	33.3	50.0	20.2	25.8	39.5	14.7	(2015)
라트비아	19.9	38.7	5.7	18.1	33.0	6.3	(2015)
룩셈부르크	10.4	14.2	6.6	11.1	15.9	6.6	(2015)
멕시코	5.2	9.1	1.7	5.5	9.3	1.9	(2015)
네덜란드	9.5	13.5	5.8	10.5	14.6	6.6	
뉴질랜드	11.3	17.7	5.2	11.8	17.6	6.5	(2013)
노르웨이	12.1	17.7	6.7	11.1	15.2	7.2	(2015)
폴란드	15.3	28.1	3.6	13.5	24.5	3.5	(2015)
포르투갈	8.6	14.9	3.5	10.2	17.1	4.6	(2014)
슬로바키아	11.3	20.7	3.2 (2010)	9.7	18.1	2.7	(2014)
슬로베니아	19.3	33.9	7.3	18.1	30.9	7.3	(2015)
스페인	6.3	10.2	2.8	6.9	10.9	3.5	(2015)
스웨덴	11.4	16.4	6.6	11.2	15.6	6.9	
스위스	12.1	18.8	6.3	12.5	19.4	6.3	(2015)
터키	1.7	2.7	0.8	2.1	3.3	1.0	(2015)
영국	6.9	11.1	3.0	7.5	11.6	3.5	(2015)
미국	12.8	20.8	5.4	13.8	21.9	6.3	(2015)
평균[1](35)	12.5	20.3	5.6	11.6	18.5	5.4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7-1]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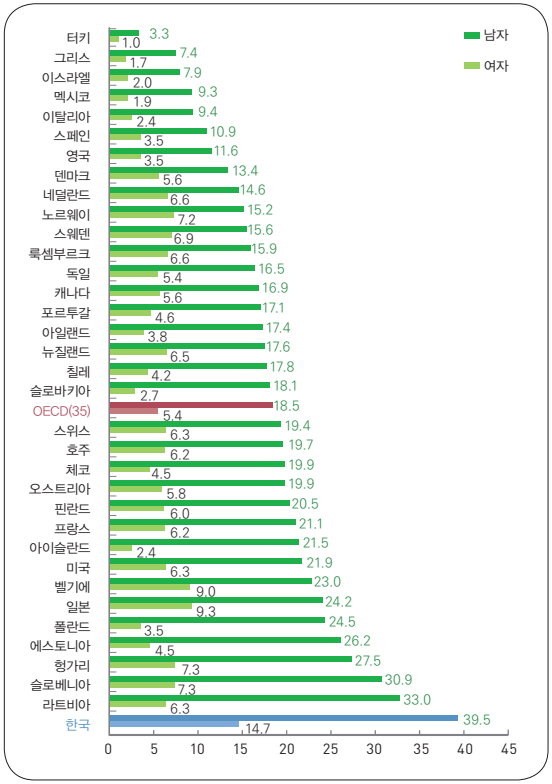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3), 프랑스·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2014), 호주·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2015)

[그림 7-2] 자살에 의한 연령표준화 사망률(남자, 여자), 2016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뉴질랜드(2013), 프랑스·아일랜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2014), 호주·벨기에·칠레·덴마크·에스토니아·핀란드·독일·그리스·이스라엘·이탈리아·일본·한국·라트비아·룩셈부르크·멕시코·노르웨이·폴란드·슬로베니아·스페인·스위스·터키·영국·미국(2015)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주관적 건강상태 양호 비율)

■ 15세 이상 인구 중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좋음, 매우 좋음)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2.5%로 OECD 평균 68.3%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평균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자 70.7%, 여자 66.0%인 반면, 우리나라는 남자 35.8%, 여자 29.2%로 남녀 모두 가장 낮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중 한국(32.5%)과 일본(35.5%), 라트비아(47.2%), 포르투갈(47.6%)은 주관적인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 낮으며, 캐나다(88.4%), 미국(88.0%), 뉴질랜드(87.8%)는 높음

- OECD 모든 회원국에서 주관적인 건강상태는 아일랜드를 제외하고 남성이 여성보다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8〉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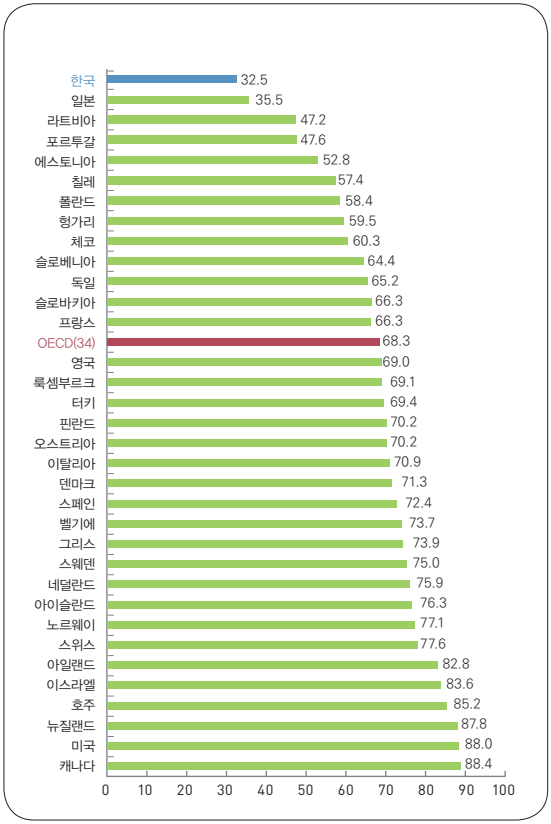
(단위:%)

	2011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85.4	85.4	85.4		85.2	85.4	85.1	(2014)
오스트리아	68.7	70.8	66.8		70.2	72.0	68.5	
벨기에	73.5	75.5	71.6		73.7	76.6	70.9	
캐나다	88.2	88.8	87.6		88.4	89.1	87.8	
칠레	59.1	67.3	51.4	(2009)	57.4	62.3	53.1	(2015)
체코	59.4	62.5	57.0		60.3	62.2	59.0	
덴마크	71.7	73.8	69.6		71.3	72.4	70.2	
에스토니아	51.8	54.4	50.0		52.8	56.1	50.6	
핀란드	68.8	70.3	67.4		70.2	71.7	68.7	
프랑스	67.6	71.0	64.4		66.3	68.3	64.5	
독일	64.8	66.4	63.3		65.2	66.8	63.5	
그리스	76.4	78.8	74.1		73.9	76.6	71.4	
헝가리	55.6	59.8	52.0		59.5	63.2	56.2	
아이슬란드	77.6	79.2	76.1		76.3	80.1	72.6	(2015)
아일랜드	83.2	83.6	82.7		82.8	82.7	82.8	
이스라엘	81.5	83.5	79.5		83.6	85.4	81.9	
이탈리아	64.5	67.8	61.4		70.9	74.3	67.7	
일본	30.0	31.5	28.6	(2010)	35.5	37.0	34.1	
한국	36.8	40.2	33.5		32.5	35.8	29.2	
라트비아	46.0	50.7	42.3		47.2	52.8	42.8	
룩셈부르크	72.5	75.0	70.1		69.1	71.6	66.7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76.3	79.5	73.5		75.9	78.6	73.2	
뉴질랜드	89.3	89.6	88.9	(2012)	87.8	88.1	87.5	
노르웨이	73.2	75.5	70.8		77.1	79.1	75.2	
폴란드	57.6	60.9	54.7		58.4	61.9	55.5	
포르투갈	49.7	55.4	44.5		47.6	52.5	43.3	
슬로바키아	63.2	68.0	58.8		66.3	69.9	63.0	
슬로베니아	60.4	63.4	57.6		64.4	68.1	60.9	
스페인	75.3	78.6	72.2		72.4	75.2	69.8	
스웨덴	78.5	80.4	76.6		75.0	77.6	72.4	
스위스	81.2	84.0	78.6		77.6	79.6	75.7	
터키	67.2	72.3	62.3		69.4	73.9	65.0	
영국	77.5	78.6	76.5		69.0	69.0	68.9	
미국	87.3	88.1	86.6		88.0	88.7	87.4	
평균[1](34)	68.2	70.9	65.8		68.3	70.7	66.0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8-1]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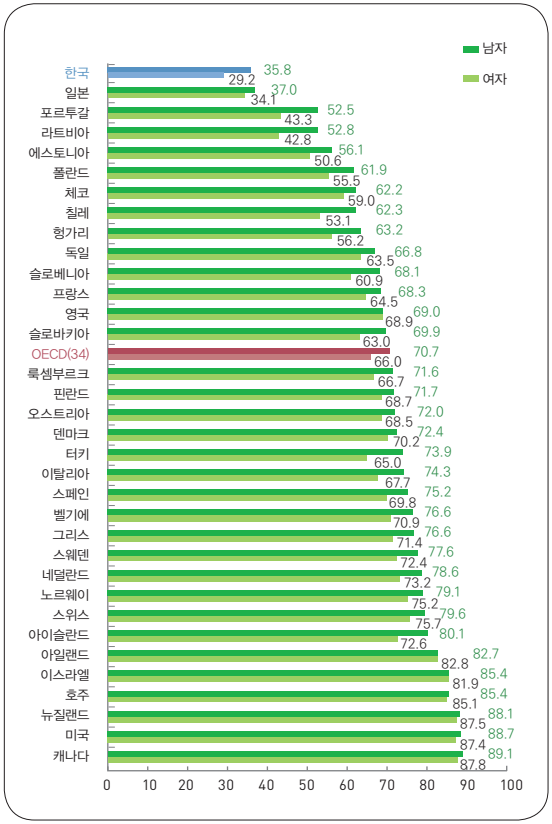
(단위:%)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2014), 칠레·아이슬란드(2015)

[그림 8-2] 본인의 건강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남자, 여자), 2016년

(단위:%)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2014), 칠레·아이슬란드(2015)

제II장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9. 주류 소비량
10. 흡연인구 비율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II 보건의 비의료 결정요인

9. 주류 소비량

-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소비량은 순수 알코올 8.7리터로 OECD 평균(8.8리터)과 비슷한 수준임
  - 2011년 주류 소비량은 8.9리터로, 5년간 0.2리터가 줄었고, OECD 회원국도 평균 주류 소비량이 2011년 9.1리터에서 2016년 8.8리터로 0.3리터 줄어듦
- OECD 회원국 중 체코, 프랑스(11.7리터)는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주류 소비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터키(1.3리터), 이스라엘(2.6리터)은 3리터 이하로 가장 낮게 나타남
  - OECD 회원국 중 12개의 국가에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연간 10리터 이상의 주류를 소비함

〈표 9〉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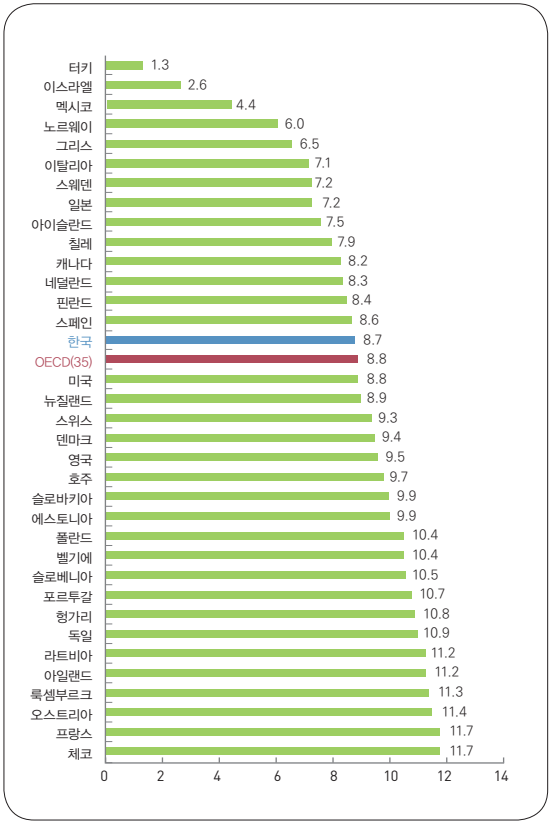
(단위: 순수알코올 ℓ)

	2011	2016	
호주	10.0	9.7	(2015)
오스트리아	11.9	11.4	(2015)
벨기에	10.1	10.4	(2015)
캐나다	8.2	8.2	
칠레	7.1	7.9	
체코	11.5	11.7	
덴마크	10.5	9.4	
에스토니아	12.0	9.9	
핀란드	9.8	8.4	
프랑스	12.4	11.7	
독일	11.9	10.9	
그리스	8.0	6.5	
헝가리	11.4	10.8	(2015)
아이슬란드	6.8	7.5	
아일랜드	11.7	11.2	
이스라엘	2.7	2.6	
이탈리아	7.0	7.1	
일본	7.3	7.2	
한국	8.9	8.7	
라트비아	10.1	11.2	
룩셈부르크	12.1	11.3	
멕시코	4.0	4.4	
네덜란드	9.0	8.3	
뉴질랜드	9.5	8.9	
노르웨이	6.4	6.0	
폴란드	10.3	10.4	
포르투갈	11.9	10.7	
슬로바키아	10.2	9.9	
슬로베니아	10.6	10.5	
스페인	9.0	8.6	
스웨덴	7.4	7.2	
스위스	10.0	9.3	
터키	1.5	1.3	
영국	9.9	9.5	
미국	8.7	8.8	(2015)
평균[1](35)	9.1	8.8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9-1]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2016년

(단위: 순수알코올 ℓ)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오스트리아·벨기에·헝가리·미국(2015)

[그림 9-2] 연도별 주류소비량(15세 이상 인구 1인당), 2008~2016년

(단위: 순수알코올 ℓ)

주) OECD: 35개국 기준, 각 해당년도 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10. 흡연인구 비율(흡연율)

-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인구의 흡연율은 18.4%로 OECD 평균(18.5%)과 비슷함
  - 여성 흡연율(4.1%)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멕시코(3.6%) 다음으로 가장 낮은 반면, 남성 흡연율(32.9%)은 OECD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수준임
  - 2011년 흡연율은 23.2%에서 5년간 4.8%p 하락했고 특히 남성 흡연율이 41.6%에서 32.9%로 큰 감소를 보임
- OECD 회원국 중 그리스(27.3%, 2014년)가 가장 높은 흡연율을 기록하였으며, 멕시코(7.6%, 2015년)의 흡연율이 가장 낮음
  - 2011년과 2016년 사이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회원국에서 흡연율이 변동이 없거나 줄어듦

〈표 10〉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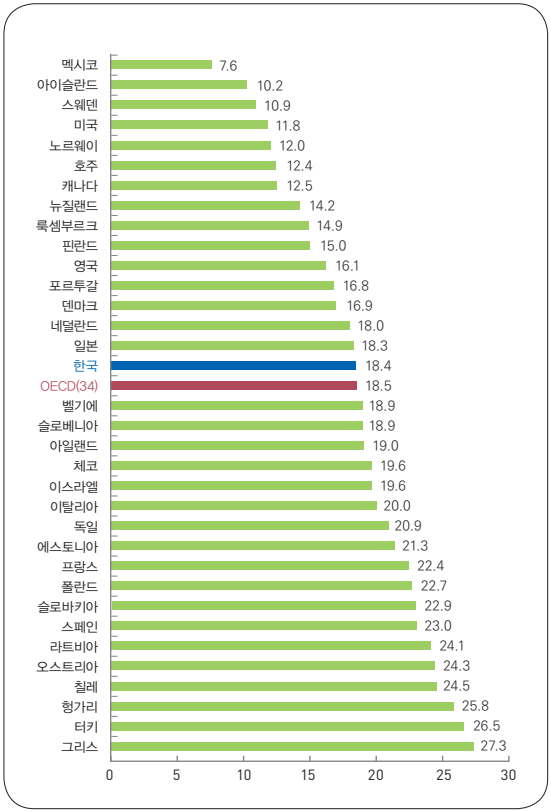
(단위: %)

	2011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15.4	16.7	14.1	(2010)	12.4	14.0	10.8	
오스트리아	–	–	–		24.3	26.5	22.1	(2014)
벨기에	20.5	23.6	17.7	(2008)	18.9	21.6	16.4	(2013)
캐나다	15.7	17.4	14.0		12.5	14.2	10.8	
칠레	29.8	33.7	26.0	(2009)	24.5	28.2	20.9	
체코	21.7	24.7	18.8		19.6	23.8	15.6	
덴마크	20.9	22.7	19.3	(2010)	16.9	18.5	15.4	(2017)
에스토니아	26.2	36.8	18.7	(2010)	21.3	29.9	15.5	
핀란드	17.8	21.9	14.8		15.0	16.0	15.0	
프랑스	23.3	26.4	20.7	(2010)	22.4	25.8	19.4	(2014)
독일	21.9	26.4	17.6	(2009)	20.9	25.1	17.1	(2013)
그리스	31.9	38.0	26.1	(2009)	27.3	33.8	21.4	(2014)
헝가리	26.5	31.9	21.7	(2009)	25.8	31.6	20.8	(2014)
아이슬란드	14.3	14.4	14.2		10.2	9.5	10.8	
아일랜드	–	–	–		19.0	21.0	17.0	
이스라엘	18.5	24.8	12.6	(2010)	19.6	25.3	14.1	
이탈리아	22.5	28.7	16.8		20.0	25.1	15.3	
일본	20.1	32.4	9.7		18.3	30.2	8.2	
한국	23.2	41.6	5.1		18.4	32.9	4.1	
라트비아	27.9	46.0	13.0	(2008)	24.1	36.0	14.5	(2014)
룩셈부르크	16.9	18.4	15.5		14.9	17.3	12.6	
멕시코	10.3	15.5	5.5		7.6	11.9	3.6	(2015)
네덜란드	20.8	23.5	18.3		18.0	20.9	15.2	
뉴질랜드	16.3	16.7	15.8	(2012)	14.2	15.6	12.9	
노르웨이	17.0	17.0	18.0		12.0	13.0	11.0	
폴란드	23.8	30.9	17.9	(2009)	22.7	28.8	17.2	(2014)
포르투갈	–	–	–		16.8	23.5	10.9	(2014)
슬로바키아	19.5	27.1	12.5	(2009)	22.9	30.4	15.8	(2014)
슬로베니아	–	–	–		18.9	21.8	16.0	(2014)
스페인	23.9	27.9	20.2		23.0	27.6	18.6	(2014)
스웨덴	13.1	13.9	12.4		10.9	10.6	11.2	
스위스	20.4	23.1	17.8	(2012)	–	–	–	
터키	25.4	39.0	12.3	(2010)	26.5	40.1	13.3	
영국	20.0	21.0	19.0		16.1	17.7	14.5	
미국	14.8	16.4	13.3		11.8	13.2	10.5	
평균[1](30)	20.7	25.8	16.1		18.3	23.0	14.1	
최근평균[2](34)					18.5	23.0	14.4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0-1〕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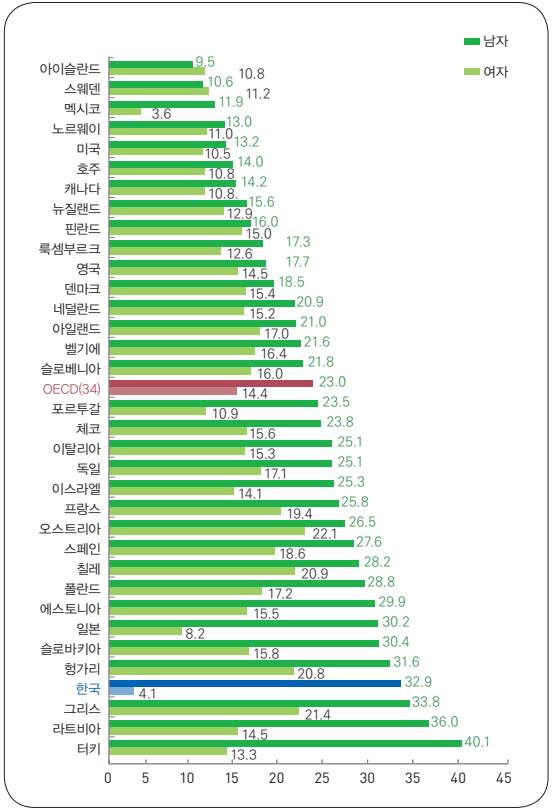
(단위: %)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독일(2013), 오스트리아·프랑스·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2014), 멕시코(2015), 덴마크(2017)

〔그림 10-2〕 흡연인구비율(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흡연자, 남자, 여자), 2016년

(단위: %)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벨기에·독일(2013), 오스트리아·프랑스·그리스·헝가리·라트비아·폴란드·포르투갈·슬로바키아·슬로베니아·스페인(2014), 멕시코(2015), 덴마크(2017)

11. 측정된 과체중 또는 비만인구 비율

■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은 34.5%로 자료를 제출한 19개 OECD 회원국 중 일본(25.4%)에 이어 2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OECD 평균(58.1%)에 비해 매우 낮음

- 과체중 및 비만인구 비율이 2011년 30.7%에서 2016년 34.5%로 상승하였으며 같은 시기 OECD 회원국의 평균은 57.2%에서 59.8%로 소폭 상승함

■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남성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여성에 비하여 높으나, 칠레, 멕시코, 터키에서는 여성의 비만 및 과체중 비율이 남성의 비율보다 더 높음

- OECD 회원국 중 칠레는 비만 및 과체중 인구의 비율이 74.2%로 가장 높으며 멕시코는 72.5%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함

〈표 11〉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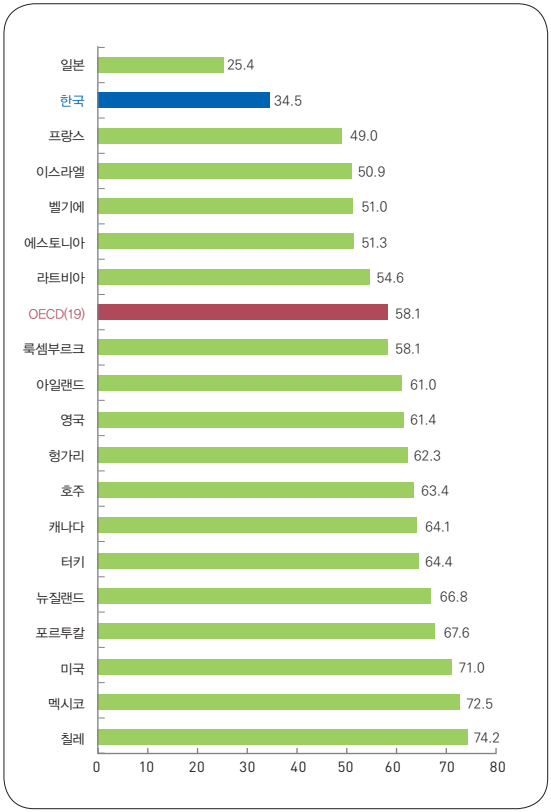
(단위: %)

	2011				2016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호주	63.4	70.3	56.2		63.4	70.8	56.3	(2014)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51.0	55.5	46.4	(2014)
캐나다	58.6	64.8	52.5	(2010)	64.1	68.4	59.9	(2015)
칠레	64.5	64.6	64.3	(2009)	74.2	73.6	74.9	
체코	55.0	61.0	49.0	(2010)	–	–	–	
덴마크	–	–	–		–	–	–	
에스토니아	–	–	–		51.3	58.1	44.9	(2014)
핀란드	65.0	70.2	59.8		–	–	–	
프랑스	–	–	–		49.0	53.9	44.2	(2015)
독일	60.0	67.1	52.9	(2012)	–	–	–	
그리스	–	–	–		–	–	–	
헝가리	61.6	62.7	60.7	(2009)	62.3	64.8	60.0	(2014)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	–		61.0	68.0	54.0	(2015)
이스라엘	–	–	–		50.9	55.1	46.4	(2015)
이탈리아	–	–	–		–	–	–	
일본	25.5	30.3	21.5		25.4	31.3	20.6	
한국	30.7	33.7	27.6		34.5	40.5	28.5	
라트비아	–	–	–		54.6	56.2	53.2	
룩셈부르크	60.2	68.2	50.3		58.1	65.8	48.7	(2014)
멕시코	71.3	69.4	73.0	(2012)	72.5	69.4	75.6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64.7	69.1	60.6	(2009)	66.8	70.4	63.4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67.6	70.3	65.2	(2015)
슬로바키아	51.5	57.8	47.7	(2008)	–	–	–	
슬로베니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55.4	52.7	58.0		64.4	62.8	66.0	(2017)
영국	61.7	65.0	58.4		61.4	65.7	57.1	
미국	68.8	74.0	63.6	(2010)	71.0	74.1	67.9	
평균[1](12)	57.2	60.4	53.9		59.8	63.1	56.6	
최근평균[2](19)					58.1	61.8	54.4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1-1〕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전체),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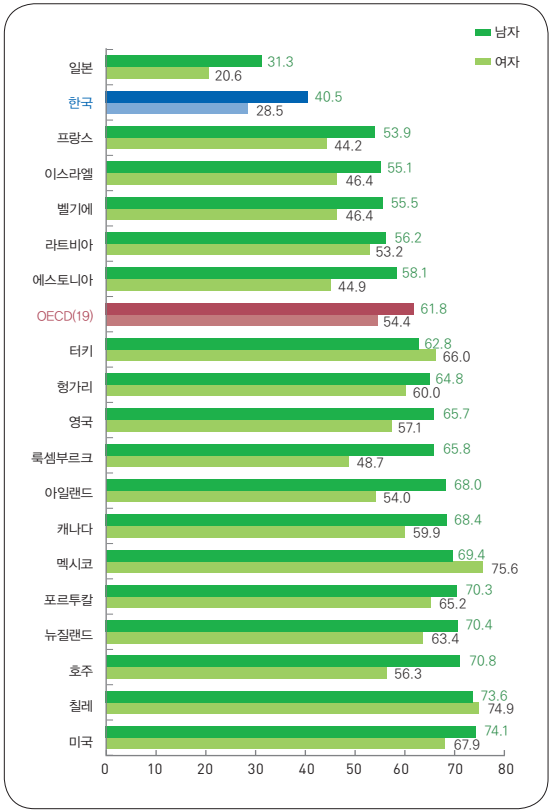
(단위: %)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벨기에·에스토니아·헝가리·룩셈부르크(2014), 캐나다·프랑스·아일랜드·이스라엘·포르투갈(2015), 터키(2017)

〔그림 11-2〕 측정된 과체중과 비만인구비율(남자, 여자), 2016년

(단위: %)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벨기에·에스토니아·헝가리·룩셈부르크(2014), 캐나다·프랑스·아일랜드·이스라엘·포르투갈(2015), 터키(2017)

OECD Health Statistics 2018

제III장

보건의료자원

12. 총 병원병상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
14. 임상의사
15. 임상간호사
16. CT 스캐너
17. MRI 장비
18. 의학계열 졸업자

III 보건의료자원

12. 총 병원병상

- 총 병원병상수는 인구 1,000명당 12.0병상으로 OECD 평균(4.7병상)보다 2.6배 많음
  - 지난 5년간 우리나라와 아일랜드,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 총 병원병상수가 줄어든 반면, 우리나라는 1.3배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총 병원병상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일본(13.1병상)이며, 한국은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총 병원병상수가 많음
  - 멕시코(1.5병상), 칠레(2.1병상)는 OECD 회원국 중 매우 적은 병원병상수를 기록함

〈표 12〉 총 병원병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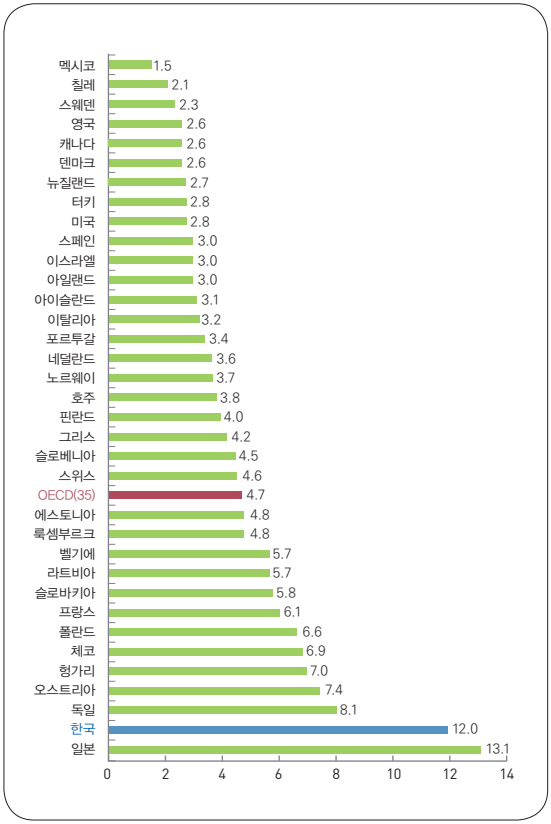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2011		2016	
호주	3.8		3.8	(2015)
오스트리아	7.7		7.4	
벨기에	6.0		5.7	
캐나다	2.8		2.6	
칠레	2.2		2.1	
체코	6.8		6.9	
덴마크	3.1		2.6	
에스토니아	5.4		4.8	
핀란드	5.5		4.0	
프랑스	6.4		6.1	
독일	8.4		8.1	
그리스	4.5		4.2	
헝가리	7.2		7.0	
아이슬란드	3.3		3.1	
아일랜드	2.6		3.0	(2015)
이스라엘	3.1		3.0	
이탈리아	3.5		3.2	(2015)
일본	13.4		13.1	
한국	9.5		12.0	
라트비아	5.9		5.7	
룩셈부르크	5.3		4.8	
멕시코	1.6		1.5	
네덜란드	4.3	(2012)	3.6	
뉴질랜드	2.8		2.7	
노르웨이	4.2		3.7	
폴란드	6.6		6.6	
포르투갈	3.4		3.4	
슬로바키아	6.1		5.8	
슬로베니아	4.6		4.5	
스페인	3.1		3.0	
스웨덴	2.7		2.3	
스위스	4.9		4.6	
터키	2.5		2.8	
영국	2.9		2.6	
미국	3.0		2.8	(2015)
평균[1](35)	4.8		4.7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2] 총 병원병상수, 2016년

(단위: 병상수/인구 1,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아일랜드·이탈리아·미국(2015)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

- 인구 1,000명당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수는 7.1병상으로 OECD 회원국 평균(3.6병상)에 비해 매우 높음
  - 2011년과 2016년 사이 OECD 회원국 중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수가 늘어난 국가는 한국(6.8→7.1병상), 아일랜드(2.4→2.8병상, 2015년), 네덜란드(2.8→3.2병상), 터키(2.5→2.7병상)임

- OECD 회원국 중 가장 많은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을 보유한 국가는 일본(7.8병상)이며,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음
  - 멕시코(1.5병상), 칠레 및 캐나다(2.0병상)는 인구 1,000명당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수가 2.0병상 이하로 낮음

〈표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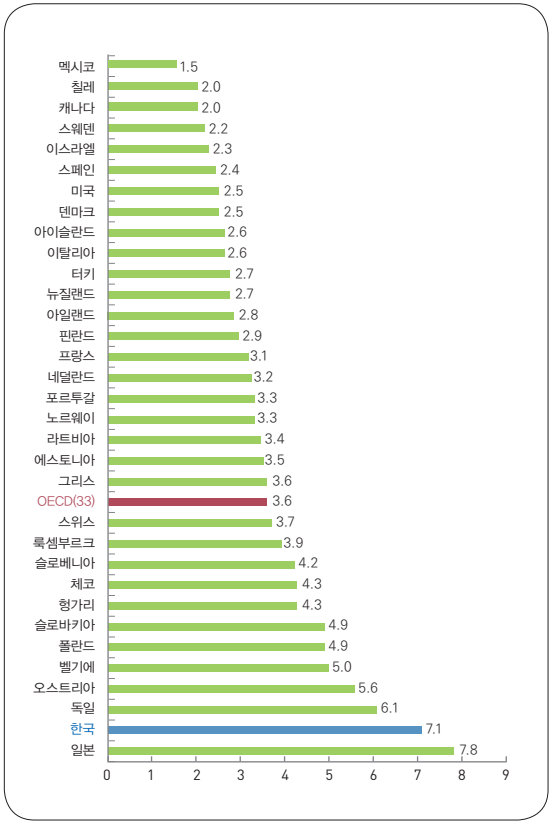
(단위: 병상수/인구1,000명)

	2011	2016	
호주	..	..	
오스트리아	6.1	5.6	
벨기에	5.4	5.0	
캐나다	2.1	2.0	
칠레	2.1	2.0	
체코	4.7	4.3	
덴마크	3.1	2.5	
에스토니아	3.8	3.5	
핀란드	3.3	2.9	
프랑스	3.4	3.1	
독일	6.3	6.1	
그리스	3.7	3.6	
헝가리	4.5	4.3	
아이슬란드	2.7	2.6	
아일랜드	2.4	2.8	(2015)
이스라엘	2.4	2.3	
이탈리아	2.9	2.6	(2015)
일본	8.0	7.8	
한국	6.8	7.1	
라트비아	3.6	3.4	
룩셈부르크	4.1	3.9	
멕시코	1.6	1.5	
네덜란드	2.8	3.2	
뉴질랜드	2.8	2.7	
노르웨이	3.8	3.3	
폴란드	5.0	4.9	
포르투갈	3.3	3.3	
슬로바키아	5.1	4.9	
슬로베니아	4.3	4.2	
스페인	2.4	2.4	
스웨덴	2.5	2.2	
스위스	4.0	3.7	
터키	2.5	2.7	
영국	..	..	
미국	2.6	2.5	(2015)
평균[1](33)	3.8	3.6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3] 급성기의료 병원병상수, 2016년

(단위: 병상수/인구1,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아일랜드·이탈리아·미국(2015)

14. 임상의사

■ 임상의사수(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3명으로 OECD 평균(3.3명)보다 1.0명 적으며,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임

- 2011년 임상의사수는 인구 1,000명당 2.0명이었으며, 5년간 0.3명이 증가하였고, 2011년과 2016년 사이 OECD 회원국 평균도 인구 1,000명당 임상의사수가 0.2명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임상의사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오스트리아로 인구 1,000명당 5.1명을 기록함

- 우리나라는 멕시코, 폴란드, 일본(2.4명)과 함께 임상의사수가 인구 1,000명당 2.5명 미만으로 낮음
- 지난 5년간 슬로베니아, 스위스는 임상의사수가 0.5명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함

〈표 14〉 임상의사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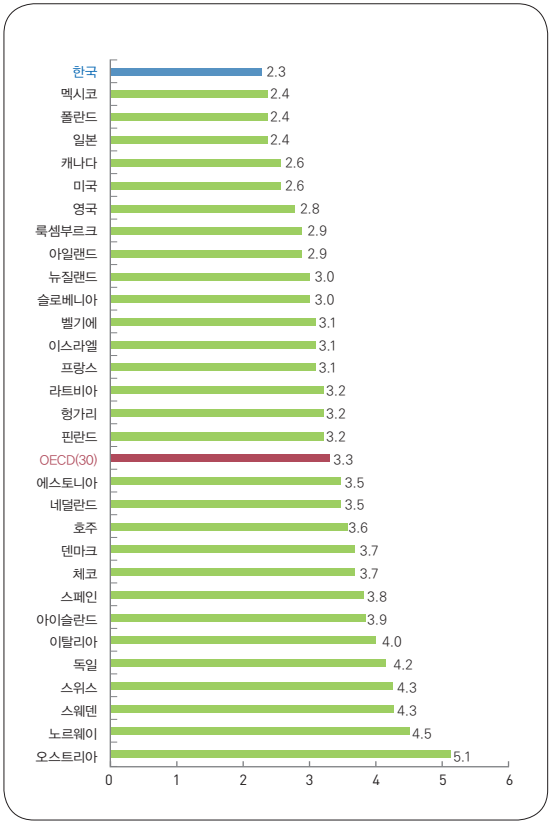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명)

	2011		2016	
호주	3.3		3.6	
오스트리아	4.8		5.1	
벨기에	2.9		3.1	
캐나다	2.4		2.6	
칠레	–		–	
체코	3.6		3.7	(2013)
덴마크	3.6		3.7	(2015)
에스토니아	3.3		3.5	
핀란드	3.0		3.2	(2014)
프랑스	3.1		3.1	
독일	3.9		4.2	
그리스	–		–	
헝가리	3.0		3.2	
아이슬란드	3.5		3.9	
아일랜드	2.7		2.9	
이스라엘	3.3		3.1	
이탈리아	3.9		4.0	
일본	2.2	(2010)	2.4	
한국	2.0		2.3	
라트비아	3.1		3.2	
룩셈부르크	2.8		2.9	
멕시코	2.1		2.4	
네덜란드	–		3.5	
뉴질랜드	2.7		3.0	
노르웨이	4.2		4.5	
폴란드	2.2		2.4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2.5		3.0	
스페인	3.8		3.8	
스웨덴	4.0		4.3	(2015)
스위스	3.8		4.3	
터키	–		–	
영국	2.7		2.8	
미국	2.5		2.6	
평균[1](29)	3.1		3.3	
최근평균[2](30)			3.3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4] 임상의사수, 2016년

(단위: 명/인구1,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체코(2013), 핀란드(2014), 덴마크·스웨덴(2015)

15. 임상간호사

- 임상간호사수(간호조무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6.8명으로 OECD 평균(9.5명)보다 2.7명 적음
  - 2011년 임상간호사 수는 4.7명으로 5년 사이 44.7%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OECD 회원국 중 노르웨이(17.5명), 스위스(17.0명), 덴마크(16.9명, 2015년)는 인구 1,000명당 15명 이상의 많은 간호 인력을 확보함
  - 멕시코(2.9명), 그리스(3.3명), 라트비아(4.6명)는 5명 미만의 적은 간호 인력을 기록함

〈표 15〉 임상간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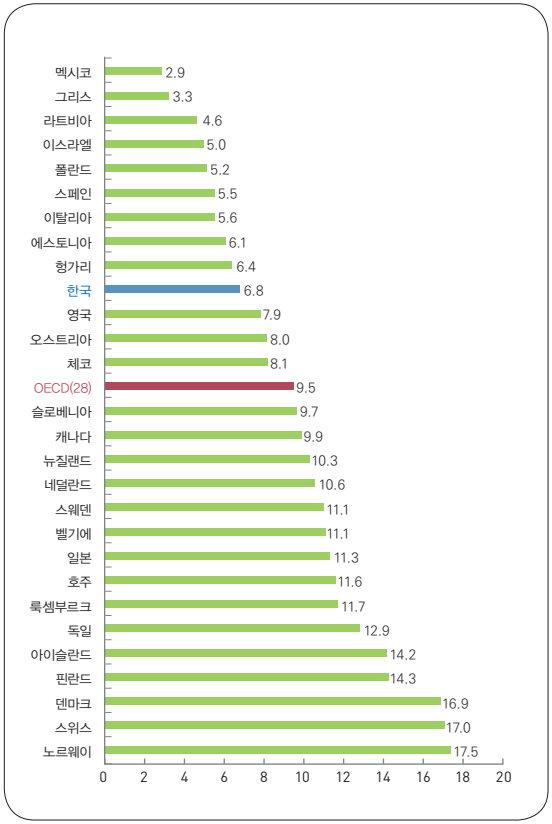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명)

	2011		2016	
호주	10.2		11.6	
오스트리아	7.8		8.0	
벨기에	9.8		11.1	
캐나다	9.3		9.9	
칠레	–		–	
체코	8.0		8.1	
덴마크	16.0		16.9	(2015)
에스토니아	6.2		6.1	
핀란드	14.1		14.3	(2014)
프랑스	–		–	
독일	11.9		12.9	
그리스	3.5		3.3	
헝가리	6.2		6.4	
아이슬란드	14.8		14.2	
아일랜드	–		–	
이스라엘	4.8		5.0	
이탈리아	5.1		5.6	
일본	10.1	(2010)	11.3	
한국	4.7		6.8	
라트비아	5.0		4.6	
룩셈부르크	11.3		11.7	
멕시코	2.5		2.9	
네덜란드	8.4	(2008)	10.6	
뉴질랜드	10.1		10.3	
노르웨이	16.4		17.5	
폴란드	5.3		5.2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		–	
슬로베니아	8.3		9.7	
스페인	5.2		5.5	
스웨덴	11.1		11.1	(2015)
스위스	15.2		17.0	
터키	–		–	
영국	8.2		7.9	
미국	–		–	
평균[1](28)	9.0		9.5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5] 임상간호사, 2016년

(단위: 명/인구1,000명)



주) 1. OECD: 2015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핀란드(2014), 덴마크·스웨덴(2015년)

16. CT 스캐너

- CT 스캐너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7.8대로 OECD 평균 보유대수(26.8대)보다 11.0대 많음
  - 2011년 CT 스캐너 보유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35.8대로 5년간 2.0대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8대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은 인구 100만 명당 CT 스캐너 보유대수가 107.2대(2014년)로 가장 많으며, 호주(63.0대), 미국(41.8대), 덴마크(39.1대), 스위스(38.9대), 아이슬란드(38.8대), 다음으로 한국이 뒤를 이음
  - OECD 회원국 중 CT 스캐너 보유 대수가 가장 적은 국가는 멕시코(6.1대)이며, 헝가리(8.9대), 영국(9.5대, 2014년), 이스라엘(9.7대)로 인구 100만 명당 CT 보유대수가 10대 이하로 낮음

〈표 16〉 CT 스캐너 보유 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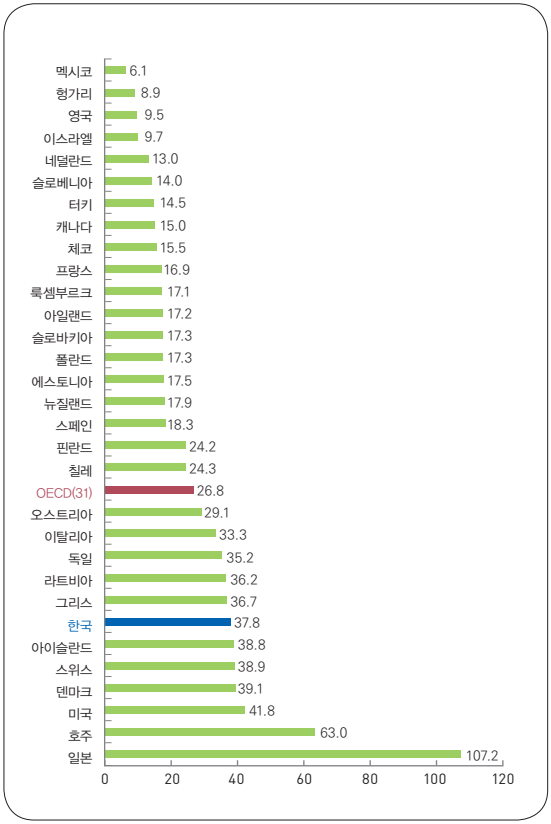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2011		2016	
호주	44.3		63.0	
오스트리아	29.6		29.1	
벨기에	–		–	
캐나다	14.6		15.0	(2015)
칠레	10.2		24.3	(2017)
체코	14.8		15.5	
덴마크	29.3		39.1	
에스토니아	16.6		17.5	
핀란드	21.3		24.2	
프랑스	12.5		16.9	
독일	33.5		35.2	
그리스	33.1		36.7	
헝가리	7.3		8.9	
아이슬란드	40.8		38.8	
아일랜드	15.7		17.2	
이스라엘	8.9		9.7	
이탈리아	32.6		33.3	(2015)
일본	101.3		107.2	(2014)
한국	35.8		37.8	
라트비아	31.1		36.2	
룩셈부르크	25.1		17.1	
멕시코	4.6		6.1	
네덜란드	12.5		13.0	
뉴질랜드	15.5		17.9	
노르웨이	–		–	
폴란드	13.6		17.3	
포르투갈	27.6	(2008)	–	
슬로바키아	15.0		17.3	
슬로베니아	12.7		14.0	
스페인	16.6		18.3	
스웨덴	–		–	
스위스	33.6		38.9	
터키	13.1		14.5	
영국	8.5		9.5	(2014)
미국	40.9		41.8	
평균[1](31)	24.0		26.8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6〕 CT 스캐너 보유 대수, 2016년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일본·영국(2014), 캐나다·이탈리아(2015), 칠레(2017)

17. MRI(자기공명영상) 장비

-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7.8대로 OECD 평균(16.8대)보다 11대 많음
  - 2011년 MRI 보유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21.3대로 5년간 1.3배 증가했고,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2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51.7대, 2014년)은 MRI 보유대수가 가장 많았으며, 미국(36.7대)이 그 뒤를 이음
  - 멕시코(2.6대), 헝가리(4.0대)는 인구 100만 명당 MRI 보유 대수가 4대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

〈표 17〉 MRI 장비 보유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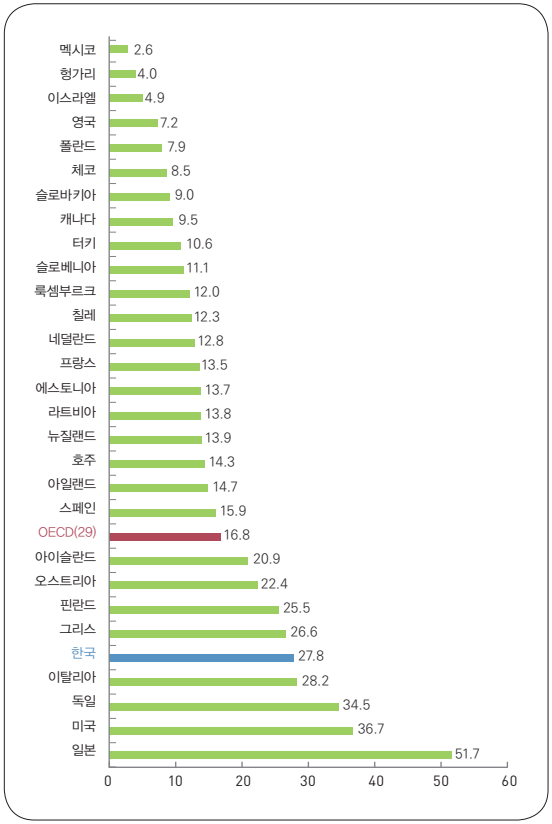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2011		2016	
호주	5.6		14.3	
오스트리아	18.7		22.4	
벨기에	–		–	
캐나다	8.5		9.5	(2015)
칠레	4.1		12.3	(2017)
체코	6.9		8.5	
덴마크	15.4	(2009)	–	
에스토니아	9.8		13.7	
핀란드	20.2		25.5	
프랑스	7.5		13.5	
독일	28.9		34.5	
그리스	22.4		26.6	
헝가리	3.0		4.0	
아이슬란드	21.9		20.9	
아일랜드	13.1		14.7	
이스라엘	2.7		4.9	
이탈리아	24.2		28.2	(2015)
일본	46.9		51.7	(2014)
한국	21.3		27.8	
라트비아	9.2		13.8	
룩셈부르크	13.5		12.0	
멕시코	2.0		2.6	
네덜란드	12.9		12.8	
뉴질랜드	11.2		13.9	
노르웨이	–		–	
폴란드	4.8		7.9	
포르투갈	9.3	(2008)	–	
슬로바키아	7.0		9.0	
슬로베니아	8.3		11.1	
스페인	13.8		15.9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9.6		10.6	
영국	7.0		7.2	(2014)
미국	31.5	(2010)	36.7	
평균[1](29)	13.7		16.8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7] MRI 장비 보유대수, 2016년

(단위: 대수/인구1,0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일본·영국(2014), 캐나다·이탈리아(2015), 칠레(2017)

18. 의학계열 졸업자

■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7.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12.0명보다 4.1명 적음

- 2011년 의학계열 졸업자는 인구 10만 명당 8.0명이었으나, 5년 사이 0.1명 줄어들었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 의학계열 졸업자 수는 1.5명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에는 아일랜드(24.4명), 덴마크(22.1명, 2015년), 포르투갈(16.4명), 라트비아(16.3명), 호주, 슬로베니아(15.9명), 아이슬란드(15.8명)가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가 15명 이상으로 많음

- 룩셈부르크(0.0명), 일본(6.7명), 이스라엘(6.8명)은 인구 10만 명당 의학계열 졸업자 수가 7명 이하로 적음

〈표 18〉 의학계열 졸업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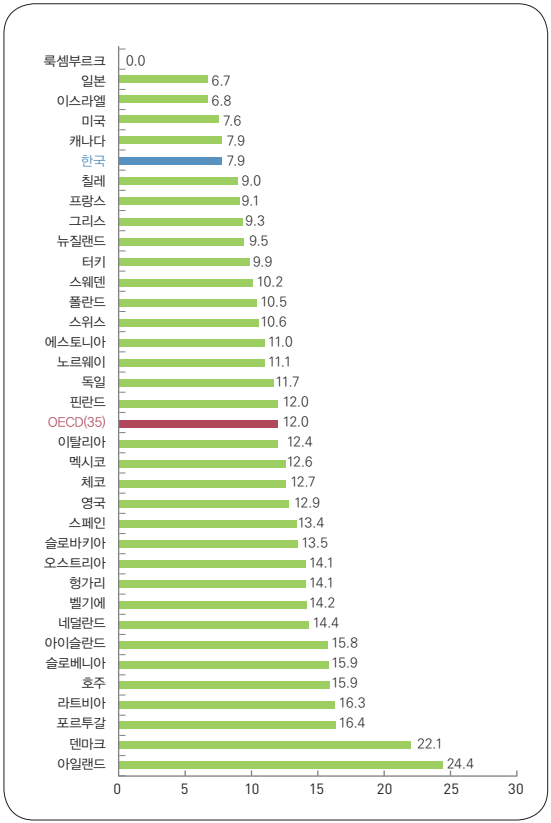
(단위: 명/인구100,000명)

	2011	2016	
호주	13.5	15.9	
오스트리아	16.8	14.1	(2015)
벨기에	10.2	14.2	
캐나다	7.4	7.9	
칠레	6.9	9.0	
체코	13.9	12.7	
덴마크	21.2	22.1	(2015)
에스토니아	9.4	11.0	
핀란드	11.5	12.0	
프랑스	6.7	9.1	(2015)
독일	11.9	11.7	
그리스	9.9	9.3	(2013)
헝가리	11.5	14.1	
아이슬란드	13.8	15.8	
아일랜드	16.1	24.4	
이스라엘	4.9	6.8	
이탈리아	11.3	12.4	(2015)
일본	6.0	6.7	
한국	8.0	7.9	
라트비아	11.3	16.3	
룩셈부르크	0.0	0.0	
멕시코	11.8	12.6	
네덜란드	14.7	14.4	
뉴질랜드	8.0	9.5	
노르웨이	11.5	11.1	
폴란드	8.8	10.5	
포르투갈	12.2	16.4	
슬로바키아	10.9	13.5	(2014)
슬로베니아	10.0	15.9	
스페인	9.0	13.4	
스웨덴	10.7	10.2	
스위스	9.4	10.6	
터키	6.7	9.9	
영국	13.3	12.9	
미국	6.9	7.6	
평균[1](35)	10.5	12.0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8] 의학계열 졸업자수, 2016년

(단위: 명/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그리스(2013), 슬로바키아(2014), 오스트리아·덴마크·프랑스·이탈리아(2015)

OECD Health Statistics 2018

제Ⅳ장

보건의료이용

19. 의사의 외래진료
20. 치과의사의 외래진료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2. 제왕절개 건수
23.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Ⅳ 보건의료이용

19. 의사의 외래진료

-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7.0회로 OECD 평균(7.4회)보다 2.3배 많음
  - 2011년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12.5회로 5년간 4.5회 늘어났고, OECD 평균은 2011년 7.0회에서 2016년 7.4회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의사의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일본은 12.8회(2015년)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진찰 횟수를 기록함
  - OECD 회원국 중 스웨덴(2.8회), 멕시코(2.9회)는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횟수가 3.0회 이하로 낮음

〈표 19〉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건수(국민1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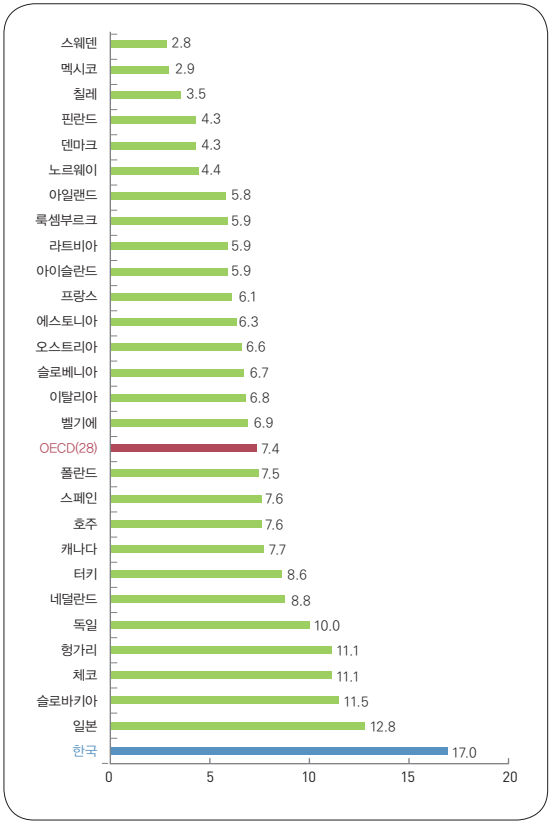
(단위: 건)

	2011		2016	
호주	6.7		7.6	
오스트리아	6.9		6.6	
벨기에	6.7		6.9	
캐나다	7.7		7.7	
칠레	3.4		3.5	(2015)
체코	11.1		11.1	(2013)
덴마크	4.8		4.3	
에스토니아	6.4		6.3	
핀란드	4.2		4.3	
프랑스	6.8		6.1	
독일	9.7		10.0	
그리스	–		–	
헝가리	11.1		11.1	
아이슬란드	6.1		5.9	(2014)
아일랜드	3.8	(2010)	5.8	
이스라엘	6.2	(2009)	–	
이탈리아	–		6.8	(2013)
일본	13.0		12.8	(2015)
한국	12.5		17.0	
라트비아	6.3		5.9	
룩셈부르크	6.0		5.9	
멕시코	2.7		2.9	
네덜란드	6.6		8.8	
뉴질랜드	3.7	(2012)	–	
노르웨이	4.4		4.4	
폴란드	6.8		7.5	
포르투갈	4.2		–	
슬로바키아	11.0		11.5	
슬로베니아	6.5		6.7	
스페인	7.4		7.6	(2014)
스웨덴	3.0		2.8	
스위스	3.9	(2012)	–	
터키	8.2		8.6	
영국	5.0	(2009)	–	
미국	4.0		–	
평균[1](27)	7.0		7.4	
최근평균[2](28)			7.4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19〕 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건수(국민1인당), 2016년

(단위: 건)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체코·이탈리아(2013), 아이슬란드·스페인(2014), 칠레·일본(2015)

20. 치과의사의 외래진료

- 국민 1인당 치과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연간 횟수는 1.4회로 OECD 회원국 평균(1.2회)보다 많음
  - 2011년 국민 1인당 치과의사의 연간 외래진료횟수는 1.6회로 2016년까지 0.2회 감소하였고, OECD 평균은 2011년 1.2회에서 2016년 1.3회로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일본은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연간 3.2회(2015년)로 가장 높으며, 네덜란드(2.6회)도 연간 2회 이상의 높은 치과의사 진료 횟수를 기록함
  - 국민 1인당 치과의사 외래진료 횟수가 멕시코는 0.2회, 덴마크와 이탈리아(2013년)는 0.5회로 연간 0.5회 이하로 매우 낮음

〈표 20〉 치과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국민 1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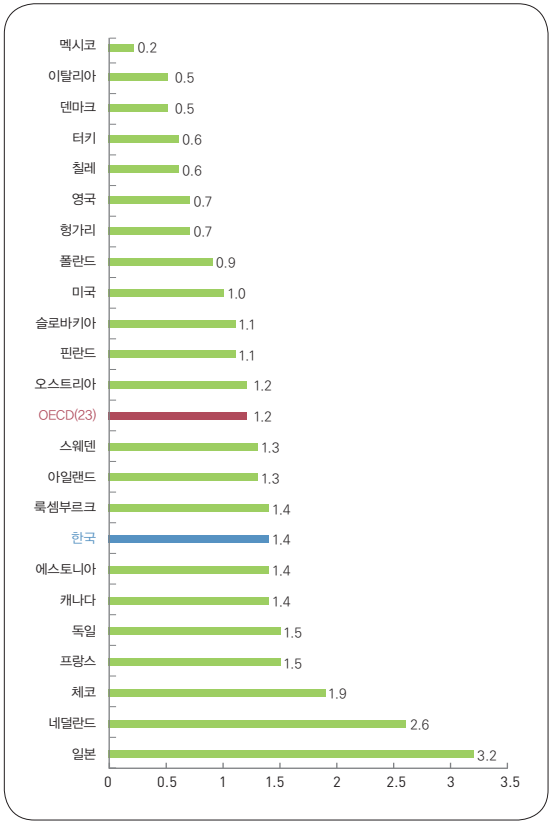
(단위: 건)

	2011		2016	
호주	1.5	(2010)	–	
오스트리아	1.2		1.2	
벨기에	2.5	(2009)	–	
캐나다	1.3	(2010)	1.4	
칠레	0.6		0.6	(2015)
체코	1.9		1.9	(2013)
덴마크	0.9		0.5	
에스토니아	1.3		1.4	
핀란드	1.0		1.1	
프랑스	1.7		1.5	
독일	1.4		1.5	
그리스	–		–	
헝가리	0.7		0.7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0.7	(2010)	1.3	(2017)
이스라엘	2.3	(2009)	–	
이탈리아	–		0.5	(2013)
일본	3.2		3.2	(2015)
한국	1.6		1.4	
라트비아	–		–	
룩셈부르크	1.4		1.4	
멕시코	0.2		0.2	
네덜란드	2.3		2.6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	
폴란드	0.9		0.9	
포르투갈	0.0		–	
슬로바키아	1.2		1.1	
슬로베니아	–		–	
스페인	1.2		–	
스웨덴	1.4		1.3	
스위스	1.1	(2012)	–	
터키	0.4		0.6	
영국	0.8		0.7	
미국	0.9		1.0	(2015)
평균[1](22)	1.2		1.3	
최근평균[2](23)			1.2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0] 치과의사의 연간 외래진료(국민 1인당), 2016년

(단위: 건)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체코·이탈리아(2013), 칠레·일본·미국(2015), 아일랜드(2017)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환자 1인당 입원허가를 받은 때부터 퇴원할 때까지 병원에 머무르는 일수의 평균)는 18.1일로 OECD 회원국 평균(8.3일)보다 2.2배 긺

- 2011년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는 16.4일로 2016년까지 1.7일이 증가했으며, OECD 평균은 2011년과 2016년 사이 0.3일 줄어듦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일본(28.5일) 다음으로 길고 다음으로 프랑스가 10.1일(2015년)로 평균병원재원일수가 10일 이상인 국가임

- 멕시코(3.8일)와 터키(4.0일)는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가 5일 이하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짧은 재원일수를 기록함

〈표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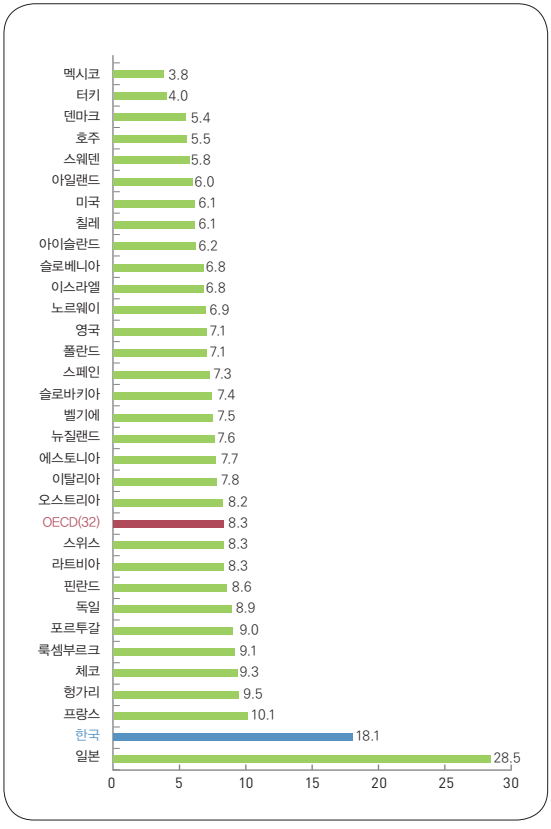
(단위: 일)

	2011	2016	
호주	5.8	5.5	(2015)
오스트리아	7.8	8.2	
벨기에	8.0	7.5	
캐나다	–	–	
칠레	5.7	6.1	
체코	9.8	9.3	
덴마크	5.8	5.4	
에스토니아	7.7	7.7	
핀란드	11.4	8.6	
프랑스	10.1	10.1	(2015)
독일	9.3	8.9	
그리스	6.8	–	
헝가리	9.5	9.5	
아이슬란드	5.6	6.2	
아일랜드	6.4	6.0	
이스라엘	7.0	6.8	
이탈리아	7.7	7.8	
일본	32.0	28.5	
한국	16.4	18.1	
라트비아	8.4	8.3	
룩셈부르크	8.7	9.1	
멕시코	3.9	3.8	
네덜란드	–	–	
뉴질랜드	9.4	7.6	(2015)
노르웨이	6.5	6.9	
폴란드	7.4	7.1	
포르투갈	8.7	9.0	
슬로바키아	8.0	7.4	
슬로베니아	7.3	6.8	
스페인	7.7	7.3	
스웨덴	5.9	5.8	
스위스	9.3	8.3	
터키	3.9	4.0	
영국	7.3	7.1	
미국	6.1	6.1	(2015)
평균[1](32)	8.6	8.3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1〕 환자 1인당 평균병원재원일수, 2016년

(단위: 일)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프랑스·뉴질랜드·미국(2015)

22. 제왕절개 건수

-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394.0건(2015년)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64.0건보다 1.5배 많음
  - 2011년과 2016년 사이 OECD 평균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는 12.2건 늘어났고, 우리나라는 2011년과 2015년 사이 47.9건 늘어남

- OECD 회원국 중 터키는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53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394.0건, 2015년)이 그 뒤를 이음
  - 이스라엘(151.9건)은 OECD 회원국 중 출생아 1,000명당 제왕절개 건수가 가장 낮았으며, 노르웨이(161.9건), 네덜란드(161.9건, 2014년), 핀란드(162.2건)도 170건 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표 22〉 제왕절개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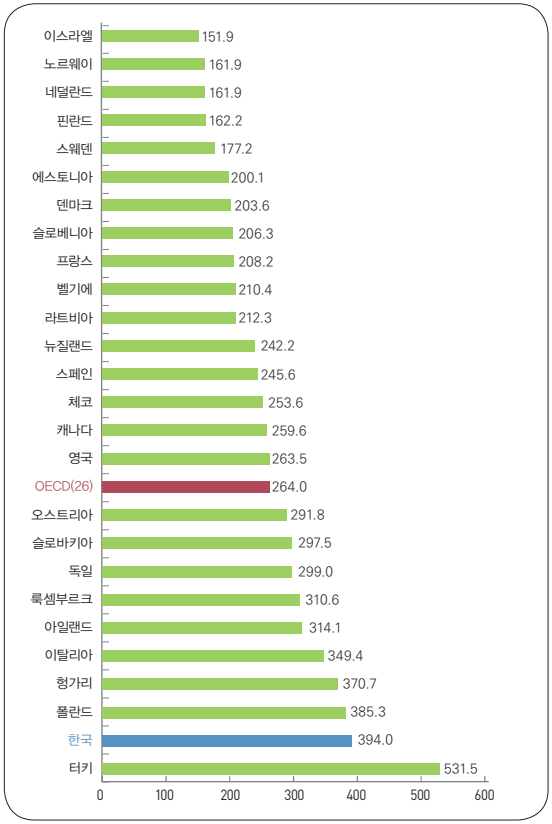
(단위: 건/출생아1,000명)

	2011		2016	
호주	–		–	
오스트리아	283.2		291.8	
벨기에	201.3		210.4	
캐나다	263.9		259.6	(2014)
칠레	–		–	
체코	232.7		253.6	(2015)
덴마크	213.9		203.6	
에스토니아	202.0		200.1	
핀란드	161.8		162.2	
프랑스	210.0		208.2	
독일	308.9		299.0	
그리스	–		–	
헝가리	332.0		370.7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269.0		314.1	
이스라엘	177.1		151.9	
이탈리아	377.1		349.4	
일본	–		–	
한국	346.1		394.0	(2015)
라트비아	229.8		212.3	
룩셈부르크	302.2		310.6	
멕시코	–		–	
네덜란드	155.9	(2010)	161.9	(2014)
뉴질랜드	241.5		242.2	(2015)
노르웨이	–		161.9	
폴란드	298.9		385.3	
포르투갈	–		–	
슬로바키아	266.2		297.5	
슬로베니아	194.1		206.3	
스페인	249.1		245.6	
스웨덴	164.0		177.2	
스위스	325.2	(2008)	–	
터키	475.2		531.5	
영국	241.3		263.5	
미국	–		–	
평균[1](25)	255.9		268.1	
최근평균[2](26)			264.0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2] 제왕절개 건수, 2016년

(단위: 건/출생아1,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캐나다·네덜란드(2014), 체코·한국·뉴질랜드(2015)

23.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 그동안 신장이식 수술건수를 제공하였으나, 금년부터 OECD 요구 통계에서 삭제되어 본 통계로 대체함

■ 인구 10만 명당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는 7.7건으로 OECD 회원국 평균(37.6건)의 20% 정도로 적음

- 2011년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는 6.3건으로 5년 사이 1.2배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의 평균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는 같은 기간 감소함(0.9배)

■ OECD 회원국 중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덴마크로 인구 10만 명당 64.8건을 기록하였고, 벨기에(63.2건), 독일(61.4건)도 인구 10만 명당 60건 이상의 높은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를 기록함

- 멕시코(4.2건)가 인구 10만 명당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가 가장 적었으며, 한국(7.7건)이 그 뒤를 이음

〈표 23〉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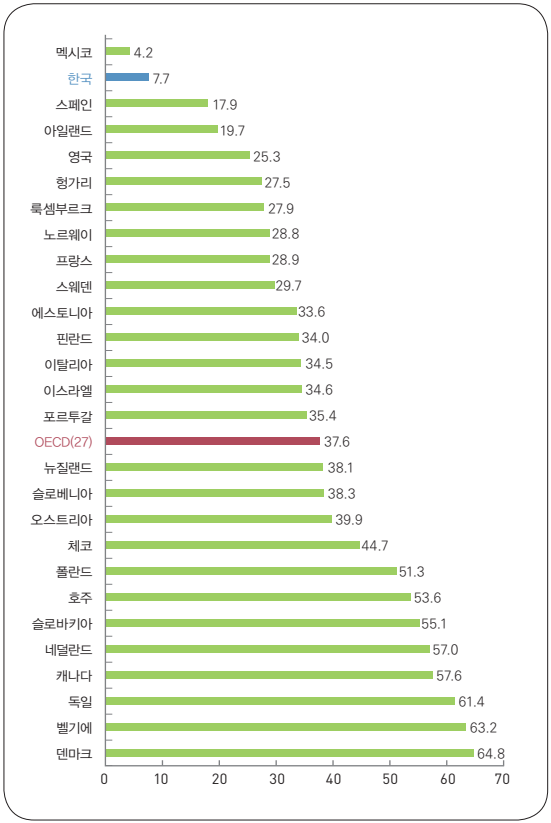
(단위: 건/인구100,000명)

	2011		2016	
호주	54.6		53.6	(2015)
오스트리아	45.4		39.9	
벨기에	67.9		63.2	
캐나다	57.9		57.6	
칠레	–		–	
체코	49.6		44.7	
덴마크	73.9		64.8	
에스토니아	44.7		33.6	
핀란드	49.1		34.0	
프랑스	28.5		28.9	
독일	68.5		61.4	
그리스	–		–	
헝가리	28.7		27.5	
아이슬란드	–		–	
아일랜드	21.1		19.7	
이스라엘	39.3		34.6	
이탈리아	39.4		34.5	
일본	–		–	
한국	6.3		7.7	
라트비아	–		–	
룩셈부르크	48.4		27.9	
멕시코	3.5		4.2	
네덜란드	54.4	(2010)	57.0	(2014)
뉴질랜드	41.1		38.1	(2015)
노르웨이	–		28.8	
폴란드	52.9		51.3	
포르투갈	38.7		35.4	(2015)
슬로바키아	31.5		55.1	
슬로베니아	36.2		38.3	
스페인	18.1		17.9	(2015)
스웨덴	37.6		29.7	
스위스	49.4	(2008)	–	
터키	63.9		–	
영국	30.3		25.3	
미국	–		–	
평균[1](26)	41.1		37.9	
최근평균[2](27)			37.6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3]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건수, 2016년

(단위: 건/인구100,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네덜란드(2014), 호주·뉴질랜드·포르투갈·스페인(2015)

OECD Health Statistics 2018

제V장

보건의료비용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등 지출 비중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

V 보건의료비용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2017년 잠정치)*

* 경상의료비는 보건의료재화와 서비스의 최종 소비에 대한 지출 비용으로 '개인의료비'와 '집합보건의료비'로 구성됨

-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는 GDP 대비 7.6%로 OECD 회원국 평균(8.9%)보다 낮음
  - 2011년에 비해 2017년(잠정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1.3%p 상승하여, 같은 기간 OECD 평균 상승(0.2%p)보다 높은 상승폭을 기록함
  - 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은 OECD 회원국 중 낮은 국가에 속하지만 증가속도는 OECD 회원국 중 높은 수준임
- OECD 회원국 가운데 미국은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17.2%로 가장 높은 지출 비율을 기록함
  - OECD 회원국 중 터키(4.2%), 멕시코(5.4%), 룩셈부르크(6.1%), 라트비아(6.3%), 폴란드 및 에스토니아(6.7%)는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7% 미만인 국가임

〈표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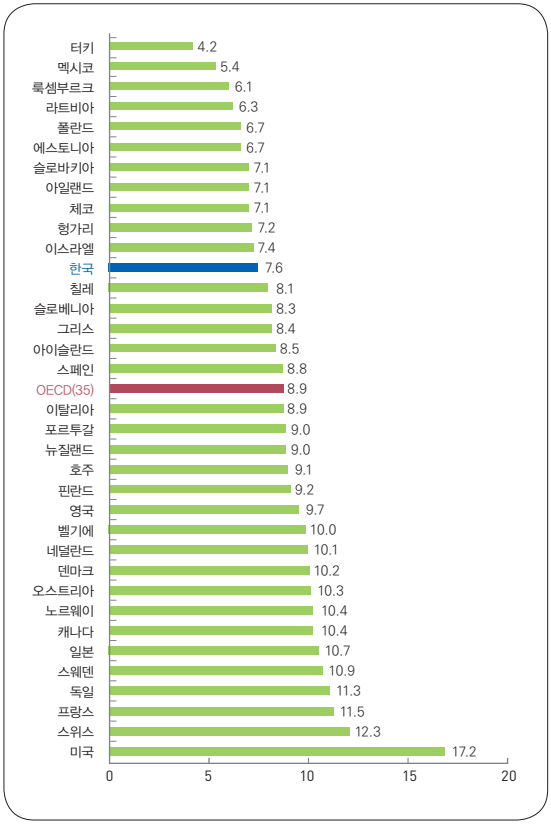
(단위: %)

	2011	2017(잠정치)
호주	8.6	9.1
오스트리아	10.0	10.3
벨기에	10.0	10.0
캐나다	10.2	10.4
칠레	6.8	8.1
체코	7.0	7.1
덴마크	10.2	10.2
에스토니아	5.8	6.7
핀란드	8.9	9.2
프랑스	11.2	11.5
독일	10.7	11.3
그리스	9.1	8.4
헝가리	7.5	7.2
아이슬란드	8.5	8.5
아일랜드	10.7	7.1
이스라엘	7.0	7.4
이탈리아	8.8	8.9
일본	10.6	10.7
한국	6.3	7.6
라트비아	5.6	6.3
룩셈부르크	6.1	6.1
멕시코	5.7	5.4
네덜란드	10.5	10.1
뉴질랜드	9.5	9.0
노르웨이	8.8	10.4
폴란드	6.2	6.7
포르투갈	9.5	9.0
슬로바키아	7.4	7.1
슬로베니아	8.5	8.3
스페인	9.1	8.8
스웨덴	10.7	10.9
스위스	10.8	12.3
터키	4.7	4.2
영국	8.4	9.7
미국	16.4	17.2
평균[1](35)	8.7	8.9

1) 2011년과 2017년 잠정치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4] GDP 대비 경상의료비, 2017년(잠정치)

(단위: %)



주) OECD: 회원국의 2017년 잠정치 평균임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2017년 잠정치)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은 58.2%로 OECD 회원국 평균(73.5%)보다 낮음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중반 이후 보장성 강화 등의 영향으로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지출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OECD 수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함

〈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추이 〉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잠정치)
한국	60.2	60.4	59.6	58.9	59.0	58.8	58.9	59.2	58.2
OECD 평균	73.4	73.2	73.1	72.7	72.6	73.4	73.4	73.6	73.5

■ OECD 회원국 중에서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이 높은 나라는 노르웨이·독일(85.0%), 덴마크·일본(84.2%), 스웨덴(83.6%), 프랑스(83.0%), 아이슬란드(82.0%), 체코(81.8%), 미국(81.8%, 2016년) 룩셈부르크(81.6%), 네덜란드(81.3%), 슬로바키아(80.5%)로 80% 이상을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으로 부담하고 있음

- 멕시코(51.6%), 라트비아(54.2%), 한국(58.2%)은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의 비중이 60% 미만으로 낮은 국가임

〈표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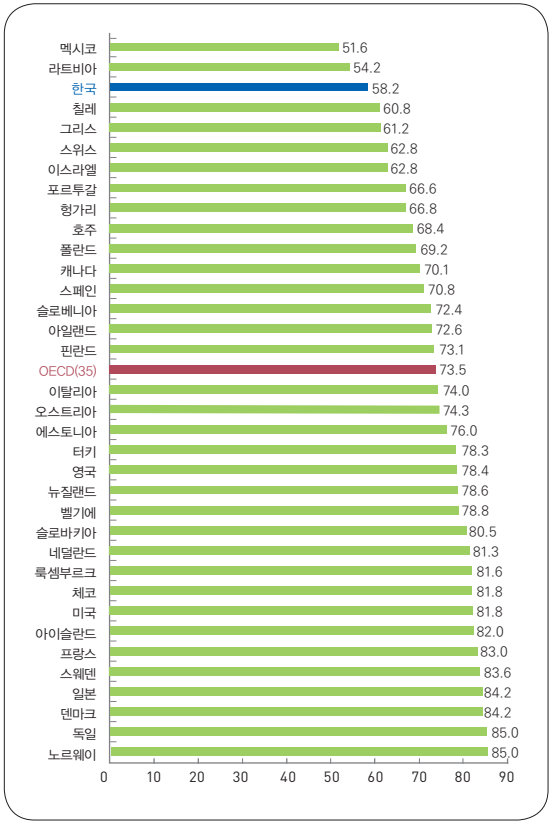
(단위: %)

	2011	2017(잠정치)	
호주	69.2	68.4	
오스트리아	74.6	74.3	
벨기에	77.9	78.8	
캐나다	70.6	70.1	
칠레	59.5	60.8	
체코	83.9	81.8	
덴마크	83.6	84.2	
에스토니아	76.7	76.0	
핀란드	74.8	73.1	
프랑스	76.0	83.0	
독일	83.3	85.0	
그리스	66.0	61.2	
헝가리	66.5	66.8	
아이슬란드	80.1	82.0	
아일랜드	71.5	72.6	
이스라엘	62.7	62.8	
이탈리아	77.0	74.0	
일본	83.7	84.2	
한국	59.6	58.2	
라트비아	63.5	54.2	
룩셈부르크	83.2	81.6	
멕시코	51.3	51.6	
네덜란드	82.2	81.3	
뉴질랜드	80.9	78.6	
노르웨이	84.4	85.0	
폴란드	70.9	69.2	
포르투갈	67.7	66.6	
슬로바키아	73.8	80.5	
슬로베니아	73.3	72.4	
스페인	73.8	70.8	
스웨덴	84.0	83.6	
스위스	62.3	62.8	
터키	79.1	78.3	
영국	82.6	78.4	
미국	48.4	81.8	(2016)
평균[1](35)	73.1	73.5	

1) 2011년과 2017년 잠정치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5] 경상의료비 중 정부·의무가입보험재원 비중, 2017년(잠정치)

(단위: %)



주) 1. OECD: 회원국의 2017년 잠정치 평균임
2. 미국(2016)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2016년)

-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3.3%로 OECD 평균인 20.3%에 비해 1.6배 높음
  - 2011년 경상의료비 중 가계지출비중은 34.6%로 5년 사이 1.3%p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4%p 상승함
- OECD 회원국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로 45.0%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부담 비중을 기록함
  - OECD 회원국 중 프랑스(9.8%)가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10% 미만으로 가장 낮음

〈표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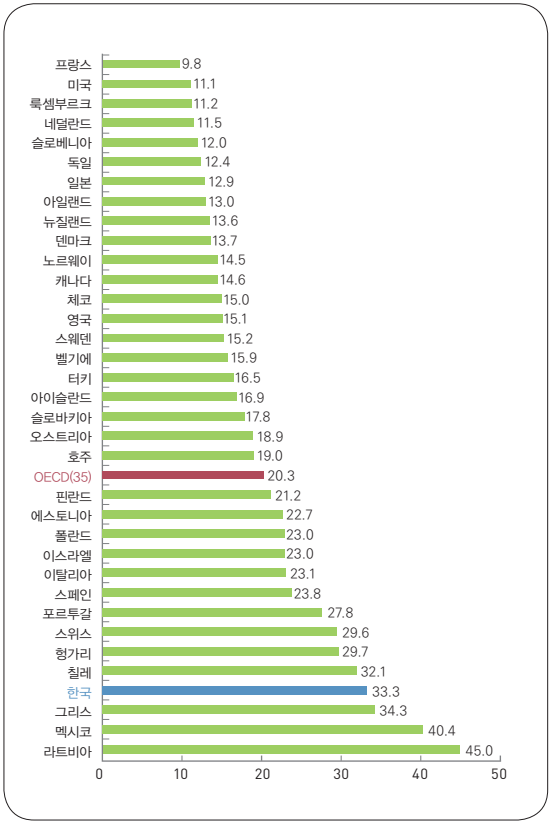
(단위: %)

	2011	2016	
호주	19.2	19.0	(2015)
오스트리아	18.7	18.9	
벨기에	17.6	15.9	
캐나다	14.7	14.6	
칠레	34.5	32.1	
체코	15.0	15.0	
덴마크	14.6	13.7	
에스토니아	21.6	22.7	
핀란드	19.4	21.2	
프랑스	10.2	9.8	
독일	13.9	12.4	
그리스	30.9	34.3	
헝가리	28.2	29.7	
아이슬란드	18.5	16.9	
아일랜드	13.5	13.0	
이스라엘	23.7	23.0	
이탈리아	22.0	23.1	
일본	13.1	12.9	(2015)
한국	34.6	33.3	
라트비아	34.3	45.0	
룩셈부르크	10.9	11.2	
멕시코	42.7	40.4	
네덜란드	9.9	11.5	
뉴질랜드	12.1	13.6	
노르웨이	15.2	14.5	
폴란드	24.0	23.0	
포르투갈	26.3	27.8	
슬로바키아	23.6	17.8	
슬로베니아	12.2	12.0	
스페인	21.1	23.8	
스웨덴	15.0	15.2	
스위스	28.5	29.6	
터키	15.9	16.5	
영국	9.9	15.1	
미국	12.2	11.1	
평균[1](35)	19.9	20.3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6〕 경상의료비 중 가계직접부담 비중, 2016년

(단위: %)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호주·일본(2015)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2016년)

-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은 21.3%를 차지하여 OECD 회원국 평균 16.1%보다 높음
  -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은 2011년 25.4%로, 2016년까지 4.1%p가 하락했으며,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1.5%p 하락함
- OECD 회원국 중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는 헝가리로 28.8%를 기록하였으며, 라트비아(28.3%)도 높은 수치를 나타냄
  - 덴마크(6.6%), 노르웨이(7.6%), 네덜란드(7.8%)는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이 8% 이하로 낮음

〈표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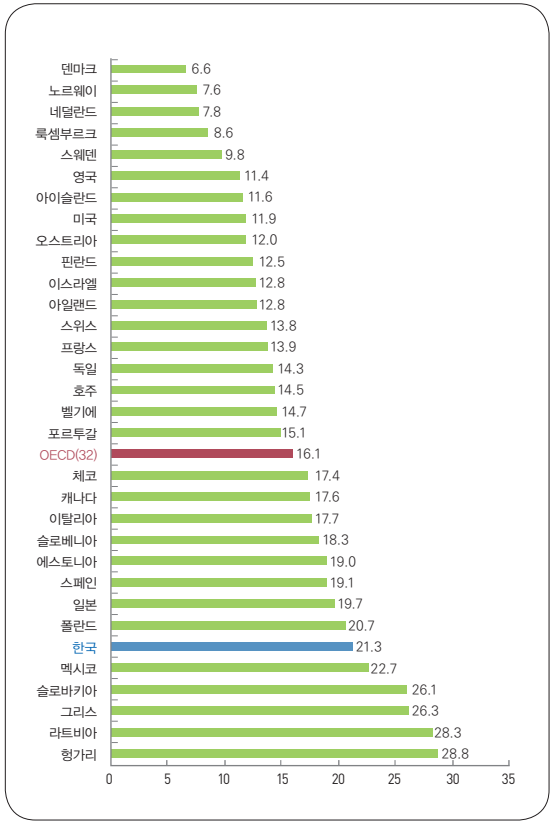
(단위: %)

	2011	2016	
호주	15.3	14.5	(2015)
오스트리아	12.3	12.0	
벨기에	15.5	14.7	
캐나다	18.3	17.6	
칠레	..	..	
체코	20.4	17.4	
덴마크	7.9	6.6	
에스토니아	19.9	19.0	
핀란드	12.9	12.5	
프랑스	15.4	13.9	
독일	14.3	14.3	
그리스	30.7	26.3	
헝가리	35.0	28.8	
아이슬란드	15.6	11.6	
아일랜드	14.3	12.8	
이스라엘	13.4	12.8	(2014)
이탈리아	18.5	17.7	
일본	18.9	19.7	(2015)
한국	25.4	21.3	
라트비아	26.1	28.3	
룩셈부르크	8.9	8.6	
멕시코	28.2	22.7	
네덜란드	9.5	7.8	
뉴질랜드	..	..	
노르웨이	8.0	7.6	
폴란드	24.1	20.7	
포르투갈	18.4	15.1	
슬로바키아	28.7	26.1	
슬로베니아	19.6	18.3	
스페인	17.8	19.1	
스웨덴	10.2	9.8	
스위스	14.2	13.8	
터키	..	..	
영국	..	11.4	
미국	11.9	11.9	
평균[1](31)	17.7	16.2	
최근평균[2](32)		16.1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7]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및 기타의료소모품 지출 비중, 2016년

(단위: %)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이스라엘(2014), 호주·일본(2015)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2017년 잠정치)

-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를 각국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환율인 US$ PPP(구매력평가환률, Purchasing Power Parity)로 보면,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2,897 US$ PPP로 OECD 회원국 평균 4,069 US$ PPP보다 1,172 US$ PPP 낮음
  - 2011년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은 1,968 US$ PPP로 6년 사이 1.5배 증가했고 OECD 회원국 평균은 같은 기간 1.2배 증가함
- OECD 회원국 중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으로 10,209 US$ PPP를 기록하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5배 많음
  - 멕시코(1,034 US$ PPP), 터키(1,194 US$ PPP)는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지출이 1,500 US$ PPP 이하로 낮은 수준임

〈표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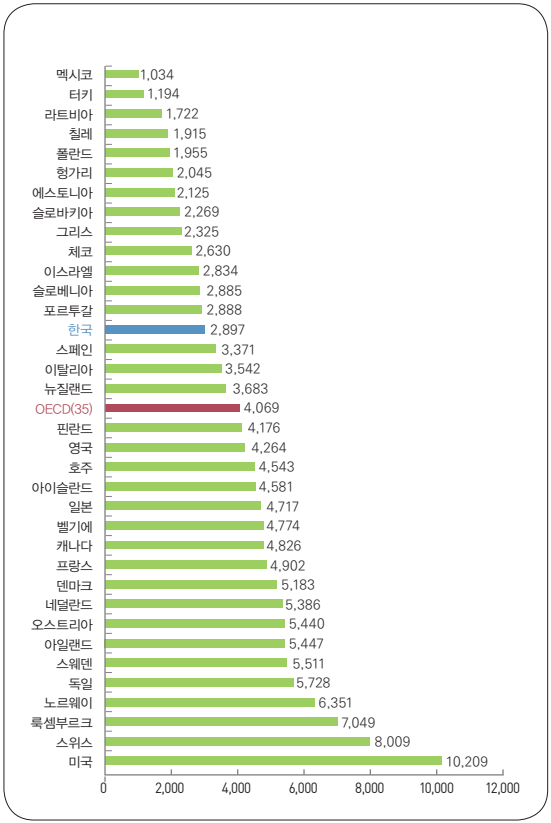
(단위: US$ PPP)

	2011	2017(잠정치)
호주	3,794	4,543
오스트리아	4,457	5,440
벨기에	4,130	4,774
캐나다	4,252	4,826
칠레	1,376	1,915
체코	2,009	2,630
덴마크	4,508	5,183
에스토니아	1,429	2,125
핀란드	3,641	4,176
프랑스	4,207	4,902
독일	4,575	5,728
그리스	2,378	2,325
헝가리	1,723	2,045
아이슬란드	3,364	4,581
아일랜드	4,835	5,447
이스라엘	2,140	2,834
이탈리아	3,211	3,542
일본	3,798	4,717
한국	1,968	2,897
라트비아	1,102	1,722
룩셈부르크	6,049	7,049
멕시코	942	1,034
네덜란드	4,846	5,386
뉴질랜드	3,113	3,683
노르웨이	5,456	6,351
폴란드	1,424	1,955
포르투갈	2,552	2,888
슬로바키아	1,917	2,269
슬로베니아	2,460	2,885
스페인	2,915	3,371
스웨덴	4,673	5,511
스위스	6,050	8,009
터키	912	1,194
영국	3,083	4,264
미국	8,150	10,209
평균[1](35)	3,355	4,069

1) 2011년과 2017년 잠정치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28]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 2017년(잠정치)

(단위: US$ PPP)



주) 1. OECD: 회원국의 2017년 잠정치 평균임

OECD Health Statistics 2018

제VI장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29. 의약품 소비량
30. 의약품 판매액

VI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29. 의약품 소비량

■ ATC(WHO 의약품 분류 기준) 대분류별로 볼 때 2016년 의약품 소비량은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와 전신성 항감염약을 제외하고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대체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의약품 소비량은 OECD 회원국 중 최고치인 475.5DDD (Defined Daily Dose, 일일상용량)를 기록함
-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신경계 소비량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낮음
- 항생제(전신성항균물질, J01) 소비량은 국민 1,000명당 하루 34.8DDD로 OECD 평균(20.8DDD)에 비해 높음

〈표 29〉 의약품 소비량,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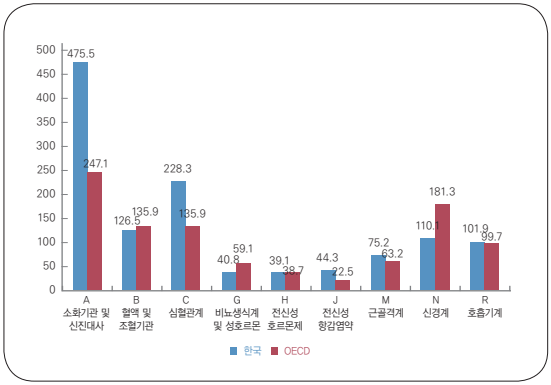
(단위: DDD[1]/1,000인/1일)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한국 포함)		
			최저 ~ 최고	평균값	중앙값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475.5	122.9 ~ 475.5	247.1	234.2
A02A	제산제	7.1	0.0 ~ 9.3	2.0	1.0
A02B	위궤양 치료제	47.3	40.1 ~ 125.6	76.3	69.6
A10	당뇨병 치료제	64.5	37.6 ~ 92.6	65.8	64.5
B	혈액 및 조혈기관	126.5	35.5 ~ 289.0	135.9	130.6
C	심혈관계	228.3	167.4 ~ 721.9	443.7	426.5
C01A	강심배당체	1.7	0.4 ~ 3.7	2.3	2.3
C01B	항부정맥약	1.2	1.0 ~ 10.4	4.0	3.0
C02	혈압강하제	2.2	1.1 ~ 31.0	7.8	5.3
C03	이뇨제	22.0	7.9 ~ 90.1	40.6	40.7
C07	베타 차단제	13.9	13.9 ~ 85.6	42.9	39.4
C08	칼슘 차단제	55.2	17.4 ~ 90.0	54.3	54.5
C09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43.5	43.5 ~ 363.9	171.6	171.0
C10	지질완화 약물	64.9	19.3 ~ 141.8	102.1	107.4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40.8	13.0 ~ 133.3	59.1	50.9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10.3	3.8 ~ 86.7	32.8	24.1
H	전신성 호르몬제	39.1	16.9 ~ 86.6	38.7	37.8
J	전신성 항감염약	44.3	12.4 ~ 44.6	22.5	20.9
J01	전신성 항균물질	34.8	9.7 ~ 40.6	20.8	19.0
M	근골격계	75.2	26.1 ~ 98.4	63.2	64.6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51.9	10.1 ~ 78.7	42.2	43.4
N	신경계	110.1	87.1 ~ 391.9	181.3	158.8
N02	진통제	14.0	5.2 ~ 94.8	29.0	20.6
N05B	불안제거약	14.1	2.0 ~ 95.4	17.9	13.8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11.5	0.0 ~ 68.4	18.5	13.0
N06A	항우울제	19.9	13.3 ~ 135.9	62.2	57.3
R	호흡기계	101.9	30.2 ~ 204.9	99.7	91.5
R03	기도폐색질환약	15.0	8.5 ~ 97.5	43.4	42.2

1) DDD(Defined Daily Dose)란 약품의 일일상용량을 의미함

[그림 29] 의약품 소비량, 2016년

(단위: DDD/1,000인/1일)



주) DDD(Defined Daily Dose)란 약품의 일일상용량을 의미함

30. 의약품 판매액

■ 구매력지수를 기준으로 한 2016년 1인당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혈액 및 조혈기관, 심혈관계, 전신성 항감염약, 근골격계 등의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음(1인당 US$, PPP 기준)
-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의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의 평균 수준임
- 전신성 호르몬제, 신경계, 호흡기계 등의 의약품 판매액은 OECD 회원국의 평균보다 낮음

〈표 30-1〉 의약품 판매액(US$), 2016년

(단위: 1인당 US$)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한국 포함)		
			최저 ~ 최고	평균값	중앙값
	총판매	444.0	91.4 ~ 773.2	386.9	409.3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67.1	2.6 ~ 111.9	45.7	48.9
A02A	제산제	1.2	0.0 ~ 1.7	0.5	0.4
A02B	위궤양 치료제	15.8	0.4 ~ 21.6	8.1	7.0
A10	당뇨병 치료제	14.9	1.1 ~ 40.5	19.9	19.5
B	혈액 및 조혈기관	37.5	1.9 ~ 54.6	28.3	30.0
C	심혈관계	55.1	1.5 ~ 96.8	44.7	42.8
C01A	강심배당체	0.0	0.0 ~ 0.5	0.1	0.1
C01B	항부정맥약	0.2	0.0 ~ 96.8	5.8	0.1
C02	혈압강하제	0.5	0.1 ~ 6.2	2.1	2.2
C03	이뇨제	0.4	0.1 ~ 6.3	2.5	2.2
C07	베타 차단제	2.1	0.1 ~ 8.9	4.5	4.4
C08	칼슘 차단제	6.0	0.1 ~ 11.4	3.1	2.8
C09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19.8	0.6 ~ 33.9	13.7	12.0
C10	지질완화 약물	20.2	0.3 ~ 31.2	11.8	9.9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3.0	0.4 ~ 42.5	14.8	12.9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3.4	0.2 ~ 18.0	6.5	5.2
H	전신성 호르몬제	4.1	0.4 ~ 16.5	8.1	7.7
J	전신성 항감염약	52.6	4.3 ~ 98.9	37.0	33.0
J01	전신성 항균물질	22.5	1.1 ~ 26.2	10.1	8.1
M	근골격계	24.0	0.7 ~ 50.4	15.1	14.5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0.5	0.2 ~ 12.5	6.6	6.6
N	신경계	37.7	2.2 ~ 148.0	58.2	54.4
N02	진통제	6.7	0.4 ~ 28.8	12.2	9.7
N05B	불안제거약	1.1	0.1 ~ 7.1	2.1	1.5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0.9	0.0 ~ 11.6	2.4	1.3
N06A	항우울제	3.3	0.2 ~ 29.5	7.7	6.6
R	호흡기계	18.9	2.5 ~ 60.2	27.2	25.1
R03	기도폐색질환약	5.3	2.3 ~ 34.5	17.2	18.4
	기타[1]	134.0	0.0 ~ 216.0	111.2	131.4

1)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표 30-2〉 의약품 판매액(US$, PPP), 201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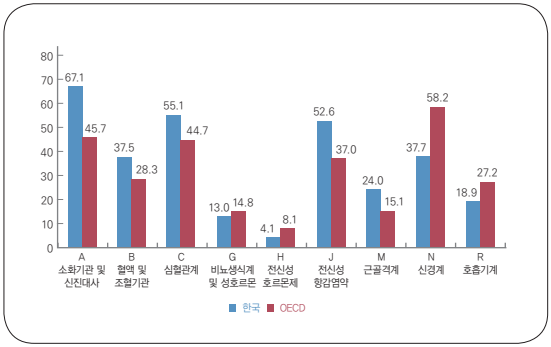
(단위: 1인당 US$, PPP[1])

ATC 항목	항목명	한국	OECD 회원국(한국 포함)		
			최저 ~ 최고	평균값	중앙값
	총판매	589.1	155.6 ~ 685.5	448.9	465.7
A	소화기관 및 신진대사	89.0	5.4 ~ 90.0	54.8	50.4
A02A	제산제	1.6	0.0 ~ 1.6	0.6	0.6
A02B	위궤양 치료제	20.9	0.8 ~ 23.5	9.7	8.0
A10	당뇨병 치료제	19.8	2.4 ~ 46.2	24.8	22.0
B	혈액 및 조혈기관	49.7	4.0 ~ 68.0	34.0	35.4
C	심혈관계	73.1	3.2 ~ 134.1	54.7	57.3
C01A	강심배당체	0.0	0.0 ~ 0.4	0.1	0.1
C01B	항부정맥약	0.3	0.1 ~ 77.5	5.4	0.1
C02	혈압강하제	0.7	0.2 ~ 7.6	2.7	2.3
C03	이뇨제	0.5	0.2 ~ 7.0	3.0	3.1
C07	베타 차단제	2.8	0.2 ~ 10.3	5.5	5.9
C08	칼슘 차단제	8.0	0.2 ~ 12.0	3.7	3.6
C09	레닌 안지오텐신약물	26.3	1.3 ~ 50.1	17.8	19.3
C10	지질완화 약물	26.8	0.6 ~ 46.1	14.4	13.9
G	비뇨생식기계 및 성호르몬	17.3	0.9 ~ 34.0	17.3	18.5
G03	성호르몬 및 생식계 변조제	4.5	0.4 ~ 17.7	7.7	6.4
H	전신성 호르몬제	5.4	0.8 ~ 17.4	9.3	9.1
J	전신성 항감염약	69.8	9.0 ~ 94.5	44.0	43.1
J01	전신성 항균물질	29.8	2.3 ~ 34.6	12.4	10.5
M	근골격계	31.9	1.5 ~ 40.3	18.2	17.0
M01A	항염제, 항류마티스약	13.9	0.4 ~ 16.0	8.3	8.9
N	신경계	50.0	4.6 ~ 123.5	65.7	69.3
N02	진통제	8.9	0.8 ~ 27.1	13.9	13.1
N05B	불안제거약	1.4	0.1 ~ 8.8	2.5	2.2
N05C	최면제 및 진정제	1.2	0.0 ~ 9.8	2.7	2.0
N06A	항우울제	4.4	0.3 ~ 31.2	9.1	7.3
R	호흡기계	25.1	5.3 ~ 56.1	32.0	31.2
R03	기도폐색질환약	7.1	4.9 ~ 33.9	20.2	21.1
	기타[2]	177.7	0.0 ~ 254.4	126.7	150.5

1) PPP (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2) 기타에는 모든 ATC의 투약조제료가 포함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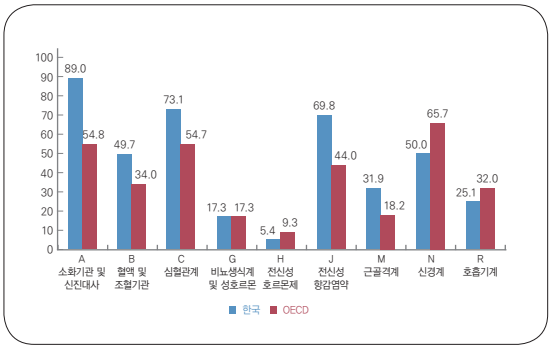
[그림 30-1] 의약품 판매액(US$), 2016년

(단위: 1인당 US$)



[그림 30-2] 의약품 판매액(US$ PPP), 2016년

(단위: 1인당 US$, PPP)



주) PPP(Purchasing Power Parity)란 구매력평가환율을 의미함

제Ⅶ장

장기요양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Ⅶ 장기요양

31. 장기요양병상(침상)수

■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61.2개로 OECD 평균(49.1개)보다 다소 높음

- 2011년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은 47.2개로 5년 사이 약 14.0병상 늘어났으며,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은 0.7병상 줄어듦
- 전체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 중 병원병상의 비중은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음

■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룩셈부르크로 83.7개를 기록함

- 폴란드(12.1개), 라트비아(17.1개), 이탈리아(19.2개)는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장기요양을 위한 병원병상과 시설침상의 수가 20개 미만으로 OECD 회원국 중 매우 낮음

〈표 31〉 장기요양병원병상과 장기요양시설침상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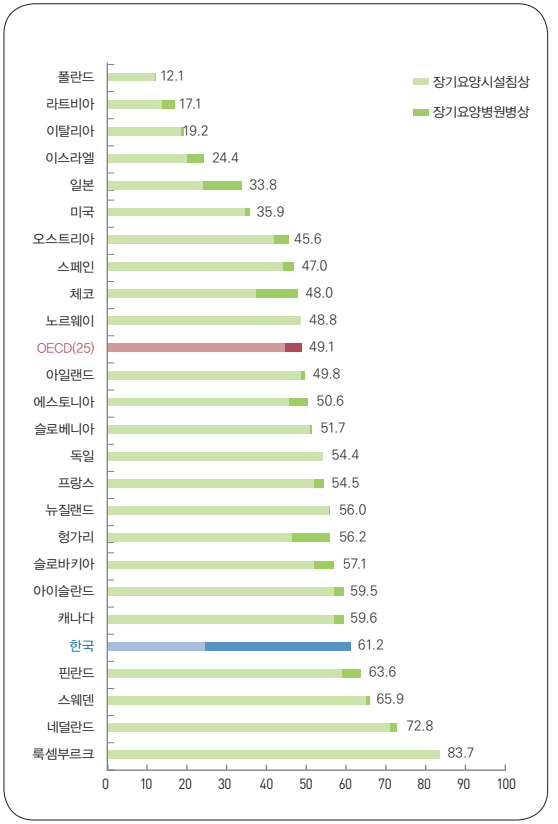
(단위: 병상수(침상수)/65세 이상 인구1,000명)

	2011			2016		
	전체	병원병상	시설침상	전체	병원병상	시설침상
호주	56.9	–	56.9	51.6	–	51.6
오스트리아	45.2	2.9	42.3	45.6	3.7	41.9
벨기에	72.8	0.9	71.9	0.6	0.6	–
캐나다	57.0	3.9	53.1	59.6	2.7	56.9
칠레	0.2	0.2	–	0.1	0.1	–
체코	52.7	10.0	42.7	48.0	10.6	37.4
덴마크	48.9	0.2	48.7	0.2	0.2	–
에스토니아	44.3	6.7	37.6	50.6	4.9	45.7
핀란드	76.3	12.0	64.3	63.6	4.7	58.9
프랑스	59.2	3.0	56.2	54.5	2.5	52.0
독일	52.8	0.0	52.8	54.4	0.0	54.4 (2015)
그리스	0.0	–	–	2.8	2.8	–
헝가리	59.7	10.2	49.5	56.2	9.7	46.5
아이슬란드	66.3	3.4	62.9	59.5	2.5	57.0
아일랜드	54.1	1.5	52.6	49.8	1.1 (2015)	48.7
이스라엘	29.4	5.6	23.8	24.4	4.4	20.0
이탈리아	19.0	0.9	18.1	19.2	0.7 (2015)	18.5 (2015)
일본	36.7	11.6	25.1	33.8	9.8	24.0
한국	47.2	24.5	22.7	61.2	36.4	24.8
라트비아	22.0	3.6	18.4	17.1	3.2	13.9
룩셈부르크	55.3	0.0	55.3	83.7	0.0	83.7
멕시코	0.0	–	–	0.0	–	–
네덜란드	66.4	0.0	66.4	72.8	1.8	71.0
뉴질랜드	62.5	–	62.5	56.0	0.1	55.9
노르웨이	55.6	0.0	55.6	48.8	0.0	48.8 (2015)
폴란드	13.1	0.4	12.7	12.1	0.1	12.0
포르투갈	0.0	–	–	0.0	–	–
슬로바키아	54.5	6.1	48.4	57.1	5.2	51.9
슬로베니아	0.7	0.7	–	51.7	0.8	50.9 (2015)
스페인	50.1	3.4	46.7	47.0	2.8	44.2
스웨덴	77.0	1.2	75.8	65.9	0.9	65.0
스위스	69.8	–	69.8	65.0	–	65.0
터키	7.5	–	7.5	8.1	–	8.1
영국	53.2	–	53.2	46.5	–	46.5
미국	41.6	1.7	39.9	35.9	1.2 (2015)	34.7 (2015)
평균[1](23)	49.4	4.9	44.5	48.7	4.7	44.0
최근평균[2](25)				49.1	4.4	44.7

1) 2011년과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모두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그림 31] 장기요양병원병상과 장기요양시설침상 수, 2016년

(단위: 병상수(침상수)/65세 이상 인구1,000명)



주) 1. OECD: 2016년(혹은 인접년도) 통계가 있는 회원국의 평균임
2. 독일·이탈리아·노르웨이·슬로베니아·미국(시설침상:2015), 아일랜드·이탈리아·미국(병원병상:2015)

OECD Health Statistics 2018

본 책자는 OECD Health Statistics 2018에서 주요 지표만을 발췌하여 구성·편집한 자료이며, OECD 공식 번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실
☎ (044)202-22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보통계연구실
☎ (044)287-8231

• 만든 곳
경성문화사 ☎(02)786-2999